고창군 관광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

2010. 12

천·년·의·비·상 전라북도

고창군 GOCHANG COUNTY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고창군 관광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

1. 세미나 목적 및 개요

○ 본 세미나는 고창군 관광의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개최함

○ 일　시 : 2010. 12월 23일(목요일) 10:00~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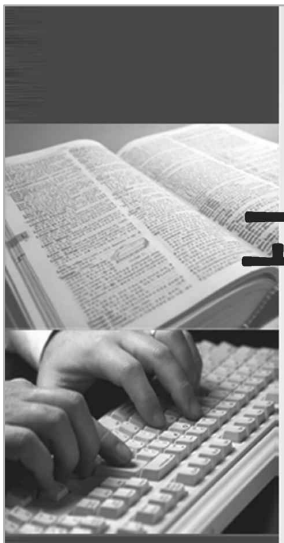
○ 장　소 : 고창군청 회의실

2. 세미나 순서

구 분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부 터	까 지		
팸투어	10:00	10:20	20′	• 고창군청 → 선운사 이동
	10:20	10:40	20′	• 선운사
	10:40	10:50	10′	• 고인돌 유적 이동
	10:50	11:10	20′	• 고인돌 유적
	11:10	11:20	10′	• 고창읍성 이동
	11:20	11:40	20′	• 고창읍성
	11:40	11:50	10′	• 석정온천 이동
	11:50	12:10	20′	• 석정온천
중 식	12:20	13:30	70′	• 우리 장어
휴식및이동	13:30	14:00	30′	• 참석자 전원
개 회	14:00	14:05	5′	• 사회 : 정명희(전북발전연구원)
축 사	14:05	14:10	5′	• 고창군수
발제 1	14:10	14:30	20′	**고창관광의 부가가치 창출 방안** **황태규** (우석대 레저컨벤션학과 교수)
발제 2	14:30	14:50	20′	**고창군과 새만금 관광 연계방안** **성기만**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준비단)
발제 3	14:50	15:10	20′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방안**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발제 4	15:10	15:30	20′	**고창군 문화자원과 길의 연계(동학농민혁명을 중심으로)**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휴 식	15:30	15:40	10′	**휴 식**
종 합 토 론	15:40	16:30	50′	**좌장** 장병권 (호원대 관광학과 교수) **토론** 김대관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김경년 (주.시엔디21 대표) 김휘영 (서진엔지니어링 부사장) 안정수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오미숙 (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윤양수 (주.건일엔지니어링 부회장) 민동규 (전라북도 관광산업과 전문위원)
폐 회	16:30		5′	• 폐 회

고창관광의 부가가치 창출 방안

황 태 규 (우석대 레저컨벤션학과 교수)



고창관광 고부가가치방안

-지역마케팅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황태규



<목차>

I. 시장의 변화

II. 사례 그리고 새로운 실험

III. 고창의 선택

2



I. 시장의 변화



❑ 왜 경제위기인가?

- **월가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과학자에게 돌린다**
  - 과학자의 창의력만이 금융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
- **새로운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는 그 무엇이 없다**
  - 기술발달 인지 수준의 둔화
  - 새로운 제품보다는 새로운 시장이 중요
  - TV, 냉장고, 자동차 등 기존제품의 리모델링
- **새로운 산업의 필요**
  - 대공황이후 문화산업의 시작인 디자인산업의 등장
  - 새로운 시장의 창출

❑ 지역 시장변화의 관찰



- **강남에서 한의원 70개, 문을 닫은 이유**
  - 단순한 농산물중심 농업통계는 무의미
  - 농산물의 활용방법은 매일 진화
- **막걸리가 돌아왔다**
  - 한옥, 한복, 한식 중 한식의 생존
  - 유전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식품
- **고창만 복분자를 재배해야 하는가?**
  - 1지역 1특산물은 법칙인가?
  - 저도주 시장의 도래
  - 술의 이벤트화, 술의 음식화
- **사람들이 산으로 간 이유**
  - 주5일근무제 이후, 관광시장의 활성화 기대 이하
  - 유럽의 경우 대도시 도심상업용지가격 하락
  - 한국 최대규모의 등산용품시장 형성

❑ 도시주거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지역의 기회



- **수도권 대도시의 뉴타운 중심의 도시개발 가속화**
  - 부동산자산의 활용 어려움
  - 은퇴자들의 선택의 제한
  - 공간이동의 가능성이 높음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시작**
  - 전후세대 : 40대중후반에서 50대중후반
  - 가장 치열하게 경제와 사회영역에 참여한 세대
  - 대부분 지역출신
  - 등산인구의 대부분(한국등산인구 1,500만(산림청))
    <자연친화적인 활동의 중심>
  - 기존의 귀농과는 차원이 다르다
  - 삶의 공간으로서의 가치존중
    (고용/주거환경/복지환경)



II. 사례 그리고 새로운 실험



❑ 테마도시<도카치 "와인마을">

1. 도시경관/상징물

철제 스크류, 와인잔 분수, 포도모양 휴지통 등

2. 문화

와인성(와인박물관)
페탕(프랑스 포도주 생산지의 민속놀이)
매년 주민들 프랑스 문화연수

3. 산업

와인택시, 레스토랑, 와인복합산업



❑ 테마도시<오구니 "나무 도시">

1. 도시경관/상징물

일본 삼나무, 나무 돔, 나무초등학교, 천연기념물 휴지통 등

2. 문화

나무공예박물관
나무생태학교 및 프로그램
나무를 통한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3. 산업

나무관련 산업, 소고기, 유제품 등



❑ 테마도시<비세쵸 "별빛도시">

1. 상징물

천문대 휴지통 등

2. 문화

별빛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제정
- 밤시간 조명제한
- 조명의 각도제한

3. 산업

야간관광, 밤의 산업(별보기 산업)

❑ 신의료관광<영천(중풍)>



질병차별화

- 약초유통의 중심지
  - 5일장 약초시장의 활성화
  - 한약재 생산 및 유통기업의 규모화 및 전문화
- 질병차별화
  - 지역 한의원을 중심으로 중풍치료 차별화
  - 주민생활부분에 접목 : 공공부분의 지원 (중풍관련 치료교실 설치)

❑ 신의료관광<장흥(간)>



질병차별화

- 한방관련 공공기관유치
  - 전라남도 한방산업진흥원유치
- 한방관련 박람회유치
  - 대체의학엑스포
- 헛개나무 중심 차별화 움직임(건간의 도시)
  - 간이 건강한 주민의 도시 (간 건강 관련 특별한 주민지원프로그램의 도시)
  - 간과 관련된 문화가 있는 도시 ('간의날' 선점)
  - 간과 관련된 산업이 있는 도시 (간 건강 관련 생약 및 요양시장 선점)



❑ 신의료관광<진안(아토피)>

질병차별화

▪ 한방약초산업의 차별화

– 단순한 인삼에서 제품중심의 차별화 선도
(금산과의 차별화를 위해 홍삼을 대표브랜드화)

▪ 아토피산업의 선도
– 새로운 질병중심의 차별화 시작
– 어린이대상의 건강산업 집중화

▪ 아토피산업의 한계

– 진입장벽이 낮다
– 시장 및 산업통제요소가 적다
– 전략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접근 필요



Ⅲ. 고창의 선택



❑ 관광자원 가치향상을 위한 방안

- 현재 경쟁력 있는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
- 새로운 기회에 딱 맞는 새로운 자원을 선점하는 것
- 현재의 자원을 재조정하고 리모델링 하여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 남의 자원을 자기 자원으로 공유하는 것



❑ 국내 지역차별화의 한계

- 지리적/자연적 차별성이 약하다
- 지역 구성요소의 획기적인 변화
- 지역 자치문화 토양 빈약



❑ 도시마케팅의 새로운 분류

BC (Before City)	AC (After City)
-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 마케팅 전략 -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소비자가 만족할 것인가?) - 도시이념, 철학, 상징, 이미지, 도시 브랜드명, 기본구상, 건축물 - 해당도시 : 신도시, 도시재생프로그램	- 도시가 만들어진 후 마케팅 -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가? - 축제, 홍보, 광고, 특산물 마케팅 - 해당도시 : 대부분 도시
What to do	How to do



❑ 지역마케팅 체계

차별화된 지역 만들기

1. 새로운 산업 / 비즈니스 공간
2. 새로운 문화의 공간
3. 색다른 삶의 질 유지공간

마케팅전략

- who : 마케팅주체 / 대상선정
- what : 지역브랜드 / 특산물/ 문화관광지 / 산업
- how : 문화마케팅 / 특산물마케팅 / 투자유치 / 테마도시

주민증가 | 방문객증가 | 기업 및 투자증가

매력있는 지역
풍요로운 지역



❑ 유혹의 3단계

- 가보고 싶다
  - 자연풍광
  - 지역특산물
- 머물고 싶다
  - 머물 수 있는 꺼리의 확보
    (체험마을 등)
  - 머물 수 있는 공간의 확보
    (예술공간,휴양시설)
- 살고 싶다
  - 삶의 공간으로서의 산업적 가치
    (도시민친화형 농어촌산업 등)
  - 주거공간의 정밀화/복지의 차별화



❑ 고창의 선택

- 상징공간의 개발
  - 인공물과 자연공간이 어울어진 상징공간개발
    (예 : 모양읍성주변 활용)
- 새로운 스토리개발
  - 선운산 등산로 새로운 이야기이입
  - 신재효, 서정주, 청보리밭 등 새로운 이야기 거리 개발
- 지역특산품 및 관광상품의 리모델링 및 리디자인
  - 정력중심의 상품구성에서의 변화 필요
  - 완성된 음식개발 필요
- 해외마케팅개척
  - 코리아브랜드가치의 적극적활용
  - 한류이미지의 적극적 활용
  - 대중국마케팅의 현실화필요
- 주변지역과의 공동마케팅
  - 새만금
  - 항쟁 그리고 혁명



감사합니다.

고창군과 새만금 관광 연계방안

성 기 만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준비단)

고창과 새만금의 관광 연계 방안

- 관광의 개념에서 → 현재의 모습까지 -

2010. 12. 23

성 기 만

1

목 차

I. 유혹을 벗자

II. 고창과 새만금

II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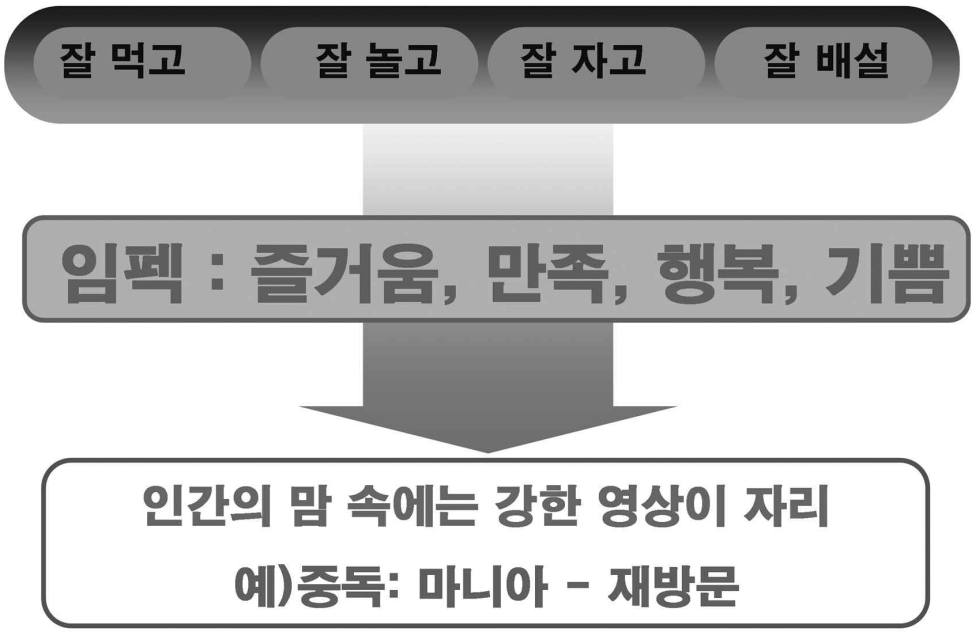
2

I. 誘惑을 벗자

3



관광은 단순하지 않다



5

관광은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획을 수립하다

Tour : 주유, 만유(한가로이), 유람여행, 짧은 여행, 돌아올 것을 전제

Journey : 육지여행 중 여러 곳을 방문하는 긴 여행

Voyage : 긴 해상 여행

Travel : 주로 탈것에 의해 이동하는 여행

Trip : 여행을 나타내는 가장 흔하게 쓰는 짧은 여행

Picnic : 먹을 것을 가지고 가는 소풍

Cruise : 순항, 선박여행

7

이 정도는 알고 계획을 수립하다

관광. 종합적으로 거리를 이동(tour)-외부 사람
*지역과 지역, 권역과 권역, 집과 다른 곳

여가. 일하고 남는 시간을 즐기는 것(leisure)- 내부사람
*집과 일터에서 벌어지는 행위

놀이 :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키는 매개체(play)

휴식 : 이동보다는 정적인 행위(rest)-맘과 몸

8

이 정도는 알고 계획을 수립하다

자원. 매력, 감탄, 재방문, 재 추천의 욕구
*다른 사람, 자기자신의 욕구분출

시설. 자원을 관람하기 위한 부차적인 시설
*호텔, 식당, 편익시설, 안내시설 등

예 : 돌 & 수석, 풀 & 난

예 : 오줌 누는 소년, 인어공주

9

투자시장과 방문시장은 끝났다

관광기업, 수요자가 판단했다

예를 들면, 세계의 인어공주, 오줌 누는 소년
한국은 ? 가수 비, 이순신동상, 세종대왕, 한식
고창은 읍성, 고인돌, 문수사, 석정온천?

산(山)은 산(山), 물(水)은 물(水)

- 산의 아름다움과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생각…
- 물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알고 배워야 하는데

농촌이 도시 화장을 하고 있다

- 농촌의 본질은 농업인데 관광으로 화장을 하고 있고
- 농촌이 양식으로 성형수술을 하여 부작용 중

11

도시가 도시다워야 하는데 관광을 흉내

- 해변도시(부산과 인천)
- 내륙도시(서울과 대전)

* 해변 : 랑독그루시옹, 캔쿤 내륙 : 파리, 에딘버러

도로가 지역을 망치고 있다

- 도로가 경관을 망치고, 지역 경제를 말살하고
- 지역과 지역, 마을과 마을, 이웃과 이웃을 단절
  (주유소, 식당, 상점)

12

남의 것을 잘 보자

두바이는 성공과 실패의 길목에 서다

- 1970년대부터 실시(2000년대 두각)
- 가장 단순한 SWOT였다
- 목적이 변질, 두바이 정체성 정신(문화부재)

실패

- 물이 물을 망하게 하고 있다
- 초기 목적 변질
- 문화와 차별화가 없다
- 12개월 냉방과 도로 등의 물 요구

미래를 보자

지금은

- 건강과 관련된 관광, 체험관광
- 환경과 관련된 관광, 개별관광
- 국가단위 이동, 자연중심현 관광

미래는

- 기후변화 대비, 생명중심
- 다문화와 다민족, 블럭개념시대
- 지역 커뮤니티, 신세대 소비트랜드

고
민
해
보
자

15

Ⅱ. 고창과 새만금 유역

고창은

- 자원 : 선운사, 청보리밭, 모양성, 고인돌, 풍천장어
- 무형 : 판소리

* 해변 : 동호해수욕장, 갯벌(만돌, 하전), 구시포항

문제점

- 고속도로, 우회도로, 현대의 편리함
- 똑같다, 매력성 부재, 농민에게 서비스는 ?

17

고창을 사랑하자

- 느림, 둘레길이냐 마실길이냐, 고인돌길이냐
- 내 집부터, 내 자식부터, 내 마을부터, 고창이 산다

협력과 자구노력

- 혼자보다는 이웃 지자체와 공동협력
- 고창만의 고창다운 문화를 정립하여 추진하자

18

새만금 관광요소는?

- 자원 : 김제, 군산, 부안
- 무형 : 풍어제
- * 전라북도와 새만금유역의 문화

문제점

- 물, 시설 부재, 이벤트부재, 시간 장기화
- 아직은 매력성 부재

19

Ⅲ. 결 론

고창은 새만금 관광권이다

문화를 갖자

지역과 협력 공생

20

관광의 유혹을 벗자

- 고창군과 새만금 관광을 중심으로 -

성기만

1. 관광의 실체가 무엇이냐?

관광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감고 가장 즐거웠던 일, 슬퍼했던 일, 여행 갔던 일, 놀았던 일 등을 기억해 보면 무엇이 남아 있는가? 무엇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아마 결과는 강한 무엇인가 임펙트를 준 것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인가가 항상 자리 잡고 있으며 강한 상(像)이 존재한다. 아마도 정확하게 말하면 강한 영상을 준 것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상을 준 것이 무엇 때문일까?가 핵심이다.

학술적으로 관광은 매우 복잡하다. 쉽게 해야 되는데 어렵게 해석을 늘어놓고 있다. 거리로는 40km 이상을 떠나야 하고, 1일 이상을 집을 떠나야 하고, 돌아와야 하고, 문화와 역사, 생활양태 등의 많은 것을 배우는 것으로 관광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는 옛날 40km는 하루가 걸리지만 지금 40km는 20분이면 가는 거리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따라서 정의도 달라야 한다고 지금 주장한다. 갈수록 세계는 넓지만 활동반경은 좁아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비슷한 상태로 흘러간다. 미국의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유니섹스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순수하고 본능적으로 관광을 정의하여 보면, 잘 먹고, 잘 놀고, 잘 보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문화, 역사, 삶, 생활 등 모르는 것)을 보고, 배우고 오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는 가장 마음속에 큰 충격을 준 장면, 행동, 소리와 같은 기억이 있으면 우리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그러한 상황과 연계되는 순간 뇌리와 마음속에서 표출하고 싶어진다. 불행하게도 인간에게는 심리적으로 가장 나쁜 것을 먼저 기억하게 되는 것이어서 인간의 본성차원에서 불평과 불만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아름다운 기억과 배움의 기억도 차근차근 이야기한다.

지금 조용하게 눈을 감고 기억을 해보자. 어디가, 무엇 때문에 머리속에 남아 있는가. 즐거웠던지, 맛있었던지, 좋았던지 등등이 나온다. 이때 머리 속에서는 이야기와 가슴 속에 담겨있는 상과 연결을 짓는다. 그래서 가장 충격이 큰 것을 말하고 가장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기억해 낸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 중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영상과 이미지가 바로바로 떠오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인간은 즐거움, 충격, 만족, 행복,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진 행동, 활동, 모습, 체험 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과 논란과 노력이 있는 것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실체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결과가 긍정과 부정의 영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자리 잡은 다음의 결과는 재방문의 과정을 겪던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나쁜 상을 기억하게 만들고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3자에게 전파되게 된다.

〈단순하게 규정하자〉

문화관광이냐 농촌관광이냐, 생태관광이냐 산업관광이냐,

천한 관광이냐 예절 있는 관광이냐, 교육관광이냐 단순관광이냐

귀족관광이냐 대중관광이냐, 어른관광이냐 아이들 관광이냐

노인관광이냐 청년 관광이냐, 섹스관광이냐 묻지마 관광이냐

보는 관광이냐 참여 관광이냐 등등 붙이고 있지만 관광활동은 단순하다.

〈지금부터는 개념을 정리하자〉

우리는 또 하나의 고민에 접해야 한다. 관광과 여가, 레저, 레크리에이션, 놀이, 체험 등 많은 단어의 홍수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러한 결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관광과 여가를 규정해 볼 수 있다.

관광은 앞에서 정의 하였지만, 여가는 무엇인가?. 이 점에서 우리는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여가를 정의하여 보면, 일하고 남는 시간에 활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쩌면 간단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보다는 주변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계활동과는 상관없이 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이것은 여기까지가 관광이고, 여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등등으로 규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면, 영화보기, 읽기, 쉬기, 운동하기, 친구방문하기, 음악듣기 등으로 볼 있다. 추억 속에서는 제기차기, 연날리기, 자치기, 그네뛰기도 있다. 여기에는 휴식이 있다. 휴식을 정의하여 보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잠자기, 감상하기, 유람하기, 묵상하기 등이다. 레크리에이션 혹은 여가, 레저다. 다만, 영어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보거나 영어권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해석상,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한 단계 진입하여 보면, 관광자원과 여가자원의 개념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도 모르는 체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관광시설도 마찬가지다. 물론 간접적으로 관광시설이 관광자원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본연의 의미를 먼저 명확하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현상에 치우친다면 그 결과는 실패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본질에 충실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성공의 열매를 얻는다고 본다.

예를 들면,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관광자원이기 이전에 음악공연장이었다. 오페라공연장이었다. 다만, 어차피 건축할 것, 보다 미적, 정적, 경관적, 활용적인 면에서 정확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한 것이다. 그런데 오페라하우스가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호주의 세계적인 관광아이콘으로 자리 잡지를 못했을 것이다. 이점을 우리는 잘 분석해야 한다. 어쩌면 여기에 해답이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 그 자원의 본질을 정리하여야 되지 현상인 오페라하우스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했다면 실패하였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다. 아마 그렇게 되었다면 호부의 아이콘은 골드코스트가 되었을까? 상상에 맡긴다.

관광시설은 무엇인가? 관광시설은 한 마디로 관광자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광자원의 보조적인 기능인 관광시설을 통해서 방문객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기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혼란을 겪게 된다. 마치 관광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바로 관광자원이 되는 것인 양 말이다. 분명하게 그 자체의 본질을 파악하여야 만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호텔, 레스토랑, 안내판, 편익시설이 관광시설인 것이다. 관광시설은 관광자원이 아니다. 여기에 약간의 반란이 있다. 최근에는 불편한 관광, 느림관광, 혼자만의 관광 등 기존의 관광과 다른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생태관광도 마찬가지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혹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관광을 하는 것은 불편함이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긴 자도차여행자들을 위해 모텔을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모텔이 불륜 혹은 음란한 장소로 변질되어 지방에서 관광객들이 매우 불편한 시설대상으로 추락하였다. 자녀를 둔 가족 숙박을 위한 공간으로는 부적절한 숙박시설로 되어 지방에서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다.

물론 최근에는 퓨전이라는 말이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유행으로 한 순간을 진행될 것이지만 지속적인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오랜 전통과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 그 생명력이 길다는 것이다.

반면, 관광자원과 여가자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여 보자. 관광자원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여가자원은 지역주민이 이용한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기본적인 부분을 알았다면 우리 고장의 시설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어느 대상에 속하는지 분류를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여유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관광자원은 가치자원이자 이용자원인 반면, 여가자원은 지역주민의 편익이용자원인 것이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관광자원과 여가자원을 구분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허나 객관적으로 관광자원은 외부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지만, 여가자원은 지역 주민과 거주민, 혹은 방문객들이 잠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관광자원을 여가자원으로, 여가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착각하여 계획을 추진하여 놓고 관광객을 모집하려고 한다. 그런데 분명히 관광자원과 여가자원을 대상과 규모, 시설과 활용방향이 차이점이 묵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창의 문수사는 나름대로 입구에서부터 아름다운 숲과 축령산계곡은 관광자원의 강도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자원으로 보는 것이 명확한 반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은 관광자원이지만 학술적인 가치이외의 경관적인 가치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크게 방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점이 있다.

반면,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어공주나 벨기에 브뤠셀의 오줌 누는 소년은 그 자체만의 동화나 역사적인 이야기 등도 있지만 주변의 문화와 삶의 손때가 묻어 있는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강한, 가보고 싶은 욕망이 작용하게 되며, 가본 후에는 기억에 남는 것은 별로 없는 현상을 보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은 여가자원이지 관광자원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 아무리 관광객들을 유인하려 하지만 그 흡입력은 시장에서 결정이 된 상태다. 시장은 두 가지다. 방문시장과 투자시장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상품가치로서 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는다. 만약 상품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요청할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는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석정온천을 들 수 있다. 온천은 맞지만 강력한 장점이 없다. 소비자들에게도 강력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무언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소비자가 없다. 소비자가 없으니 수익성은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업이 없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런데 왜 석정온천

을 개발했느냐의 초기 문제로 돌아갈 수 있다. 초기 온천을 개발하면 노다지라고 했다. 관정 하나만 굴착하여 온천수가 나오면 주변의 가치 없는 땅이 가치가 배가된다. 그래서 분양하고 사업주는 가버린다. 그래서 강력한 무언가가 없으면 소비자도, 기업도 냉정해 진다는 것이다.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활용목적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적합한 이용목적을 찾아야 한다.(과천의 우정병원자리도 보자)

반면 투자시장도 마찬가지다. 기업에서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한 결과,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를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지역에 아무리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해도 투자자는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 관광자원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하나는 60센티의 오줌 누는 소년과 인어공주는 80센티가 넌 간 관광객 300~800만 명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보자. 그럼에도 이들은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고 유지해나가면서 지역의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거대한 에펠탑, 자유여신상도 있기도 하다. 하나의 자원이 많은 관광객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소비자는 냉정하다. 자신에게 사용, 보관, 활용, 교환의 가치가 없으면 돌아보지도 않는다. 아무리 상품소유자가 좋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구매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고슴도치도 자기자식 예쁘다고 한다. 다 자기 것이 최고요, 최상이요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소비자의 심판은 끝났다. 현재의 자원에 대하여 방문객도 투자자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제 개는 많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이다.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고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다. 위에서 잠깐 본 것처럼 오줌 누는 소년이 우리나라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다. 인어공주도 있다. 그런데 보러 와야 하는데 오지 않는다. 차별성과 본질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관광은 모든 것이 화려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인간을 접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가? 환대서비스는 적성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사하다. 싸다. 비싸다. 맛있게 해주세요, 더 주세요.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다. 어쨰든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자 시설이니까?. 산은 산이다. 그런데 우리는 산을 산으로 보지 않는다. 시골을 시골로 보아야 하는데 시골을 시골로 보지 않고 도시고 본다. 소비자도 시골을 시골로 보지 않고 도시로 보는 농업을 관광으로 보니 어쩌란 말인가? 시골을 관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농업을 농업으로 보아야 하는데 농업을 체험관광으로 보고 있다. 그게 문제다. 우리는 산을 산으로 보아야 하고 물을 물로 보아야 하듯이 시골을 시골로, 농업을 농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시골을 시골스럽게 디자인하고 단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도 시골은 도시답게 포장하면 않된다는 것이다. 옷을 입히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옷을 입혀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여 개념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시설을 보완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타 지역보다 강한 충족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관광흐름

과거는 먹고, 놀고, 경관감상, 원시인도 계절에 맞추어 오랫동안 이동하였다. 신석기이후 정착생활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봐둔 지역을 방문하였다. 단순한 생각으로 관광은 놀이었다. 이동해 가면서 쉬고, 시기에 따라서 배우고, 심심하면 놀이도 하고, 피곤하면 그늘에서 쉬고, 배부르면 쉬는 것 등이 가장 행복한 관광이었다. 가장 단수한 관광활동이었다. 적어도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8세기까지의 관광형태였다.

현재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관광하고 무엇인가 기억할만한 사건, 장소, 놀이 등을 하고자 한다. 과거 시대와 활동은 똑같다. 무엇인가 만족하고 보기위해서, 먹고 쉬기 위해서, 놀고 쉬기 위해서다. 다만, 사회활동과 산업발달로 인한 도구나 양태만 다를 뿐 여타의 사건을 모든 것이 동일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건강과 관련된 관광, 체험과 관련된 관광, 환경과 관련한 관광, 경관, 모험관광, 대중에서 개별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국가단위로 이동하는 추세가 강하게 발전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에는 자연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 반면, 현대에는 인공적인 관광활동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미래는 어떠한 추세일까?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다문화와 다민족, 지역의 커뮤니티, 노령화, 기존세대감소와 신세대의 소비트랜드 등장, 건강과 생명 중심 관광이 강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먹고, 자고, 놀고, 쉬고, 즐겁게 보내려는 기본적인 요구는 똑같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인공보다는 자연의 관광을 선호하고, 인구노령화과 인구감소, 다문화민족과 문화충돌, 신자유주의의 물결, 남북통일 등의 변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지역 간의 강력한 블록개념이 도입되어 자유경쟁을 지속하면서 지역의 협력은 더욱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관광은 자연, 느림, 길, 여유라는 트랜드로 변하고 있으며, 미래는 건강, 휴식, 평안, 무간섭과 같은 건강관광, 감성과 촉감, 혼자와 휴식, 가족과 친구,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자연으로 가려는 방향으로 관광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3. 고창 현실

고창지역에 산재한 자원으로는 선운산도립공원과 선운사, 청보리밭, 모양성, 고인돌군, 판소리, 신재효와 진채선, 문학으로 서정주, 먹거리는 :풍천장어, 복분자가 대표적이다.

지금부터 정리하여 보자. 외부에서 강하게 충격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지역은 무엇일까? 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일까, 아님 다른 그 무엇이 무엇일까?

하나하나 들여다보자. 문제점으로는 고속도로와 수도권에서의 먼 거리, 험한 우회도로, 특별한 매력성 부재, 4계절 혹은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자원과 전략부재, 타 지역과의 유사성,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내륙도시라는 이미지 혹은 뚜렷한 관광의 상이 소비자들에게 있지 않다.. 아울러 주변의 당일 혹은 특정 목적으로는 고창을 방문하지만 고창만을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은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고창은 독자적인 관광정책보다는 상호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전주를 방문한 사람에게 부안이나 군산을 방문하도록 추천은 가능하다. 그러나 군산을 방문한 사람에게 고창을 추천하기에는 어렵고, 부안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고창을 방문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추천하기 보다는 전주나 익산, 혹은 군산을 경유하여 서해안 혹은 경부고속도로로 오도록 추천할 수 있는 실정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수도권 혹은 고창이나 부안 이남지역의 거주자들에게 말이다. 만약 익산장수간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경상도지역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추천일 수 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홍보나 광고보다는 인근과 연계하여 고창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는 정읍과 고창, 영광, 장성군과 연계된 상태인데, 홍보특성상 전남권과 전북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장성이나 영광에 특별한 관광자원 혹은 4계절 관광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흡입력이 떨어지는 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읍과 고창, 부안과 고창인데 정읍과 고창을 연계하는 것보다는 부안과 고창으로 연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전남권과 공조하기 보다는 동일권역인 부안권과 연계하는 것이 정읍권과 연계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 물론 정읍을 배제하라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이유는 해안이라는 특성을 연계하여 이용해야 한다. 다만, 부안에서 고창으로 오는 길은 보안면에서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 이곳에서 부안군과 연계하여 간판, 홍보 등을 강화시켜야 하나 이러한 전략은 상당히 장기적인 측면이 있다. 부창대교를 건설한다고 한다면 해안선과 연계된 도로를 개발해야 하나 이는 수요 및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고창은 해안선개발이 안 되어서 고창을 방문하면 선운산이나 선운사에서 내륙으로 빠져 관광을 하는 경향이 있고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는 전국적인 측면에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해안선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길, 체험 등등)을 강구하여 자연 그대로 혹은 생태 혹은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갯벌의 형성으로 인하여 줄포만, 하전 등 어항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구시포어항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거리적인 측면과 지리적인 여건, 주변의 매력 포인트가 없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며, 저비용의 느림의 길과 같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지형적인 여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해안선을 무작정 걷는다고 하더라도 바다 쪽에 무엇인가 있어야 하는데 수평선뿐임. 활용방안은 이야기를 만들고 형상화를 하면서 해야 하는 고민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리적으로 해안관광을 끼고 있는 도시 중 인천과 부산, 서해안권의 대천이나 춘장대, 안면도에는 항이나 해수욕장에 도시를 끼고 있고, 모래톱이 형성되어 해수욕장이 조성된 지역이며, 주변에 마을과 숙박, 횟집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주변과의 여건분석이 요구된다.

반면 군산은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해수욕장이 없는 상황으로, 해수욕장이 있는 부안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고 있음. 다만, 선유도해수욕장이나 고군산군도로 가기에는 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부안은 실제 군청 혹은 마을이 밀집되어 있다면 상황은 다른데, 곰소항 등의 기능이 없어지니까 격포항이 형성되면서 유흥시설이 입지하게 되어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소사, 채석강 등과 연계되어 당일 형식으로 조성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창은 바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부분이며, 고창 단독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인근 지자체와 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셋째, 주변정리, 넷째, 불편한 고창군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역발상으로 추진하자. 다섯째, 긴 시간을 갖고 애정 어린 맘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태에서 뒤돌아보자. 지역의 우회도로, 고속화도로, 현대의 편리함이 어쩌면 지역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화의 단절, 소음, 지역의 황폐함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스위스의 클라우젠지역은 지금도 원시적인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느림의 관광, 마실길과 둘레길과 같은 길이 생기고 있다.

또한, 잠재적이며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자연과 함께 하자는데 있고, 무엇보다 남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부터 즐기고 흥겹게 놀아야 한다. 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려내자.

군 지역은 군 지역답게, 농촌지역은 농촌답게 말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시내는 간판, 도로, 지붕 등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건물주가 일정의 투자를 통해서 관리하게 만들자 둘째, 내부는 자신들이 아름답게, 편리하게, 깨끗하게 가꾸고 청소하자. 우리의 현실은 방치하고 손님이 오면

그때그때 청소하기보다는 평상시에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손님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 놀 수 있는 자리, 쉴 수 있는 잠자리, 신명나는 음악과 음료가 있어야 한다.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인이 잘 준비를 해야 한다. 손님이 잘 준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고민해야 한다. 즉, 농촌분위기인데 도시 분위기를 내면서 손님맞이 준비는 안 된다. 농촌다운 준비를 해야 한다. 농민에게 농민이 아닌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농촌이 농촌답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농촌답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갓 쓰고 양복 입은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농민에게 서비스 옷을 입혀서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아파트를 보자. 내부는 인테리어를 하는데 공동부분은 하지 않아 웃기는 모양이다. 즉, 잠실 재개발 아파트를 가보면, 외장은 슬럼화되었고, 어떤 집 중 일부는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깨끗하게 보인다. 대부분은 슬럼화 되어 재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선진국인 일본, 독일, 유럽 지역의 국가들은 상황이 다르다. 아파트보다는 단독 주택을 선호하고 자기 집을 타인들을 위해서 정리하고 개보수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수 백 년의 전통과 선조들의 땀과 노력으로 보존된 집을 갖는데 자부심과 자랑하는데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다. 서울시내의 고층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본 집의 옥상은 쓰레기와 폐기물로 가득하다. 구석에 쑤셔 박아 놓고 정리를 하지 않는다. 후진국적인 발상이다. 자기 집은 자기가 가꾸고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귀찮해 한다. 편리한 리모트컨트롤만 움직이면 따뜻해지고, 시원해지는 시스템을 원한다. 우리의 습성이다. 그런데 선진국의 생태마을에서는 옛날 방식의 화장실, 물 사용 등을 통해서 불편하더라도 선조들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와의 차이점이다.

고창군도 마찬가지다. 고창군이라는 외관을 깨끗하게 하고, 내부도 깨끗하게 하여 고창군민이 살기 좋아야 한다. 고창군민은 살기 싫은데 외부에서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방문하지 않는다. 고창군민이 살기 좋아 외부로 가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기 마련이다. 살기 좋은데 왜 오지 않을까?

왜 스스로 고창군을 만들지 않고 외부를 통해서 고창을 만들려고 하는가 절대적으로 내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일예로 고창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녀는 무엇 때문에 외부로 유학을 보내는가? 고창의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정책을 펴면서 고창군의 인구증가를 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내 자식은 외부로 유학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따라서 지역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데 남이 좋게 평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내부가, 우리가 잘하고 즐거워하면 이때부터 외부에서 오게 된다. 방문하게 된다. 관광도 하게 된다. 머무르게 된다. 거주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러면 고창은 혁신의 바람이 불 것이다. 자연적으로 안정된 고창군이 되고, 사릭 좋은 고창군이 될 것이다.

4. 새만금 관광은

새만금 주변의 관광지역과 정책적으로 연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랜드마크인 방조제는 있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지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관광객과 방문객들을 위해 무엇인가 만들고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위적인 관광시대는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것이 있다. 새만금관광을 통해서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는 지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큰 틀이다. 단기적인 전략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5. 다른 지역의 관광

최고의 관광지는 에덴동산(파라다이스)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중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과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오면서 발전한 부분은 성공했다.

대표적으로 베니스나 덴마크 코펜하겐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체성 없는 지역은 망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일본의 하우스텐보스와 중동의 신화적인 두바이가 그렇다.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다. 자기 현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덤벼든 것이다.

두바이는 첫째, 분석은 잘했다. 물이었다. 사막의 핵심은 물이다. 그런데 물로 망하고 있다. 둘째, 목표가 도달하기 전에 너무 빠르게 목표 수정을 했다. 완공된 지금 물로 망하고 있다. 모든 나무, 시설, 도로, 집에 필수적인 부분이 물인데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가고 있다. 선조들은 집은 흙으로 지었다. 그런데 지금은 냉방과 온방, 전기생산 등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는 문화가 없다. 두바이 조상의 문화는 흙집으로 지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두바이의 문화는 새로운 도시의 두바이는 도입하지 않았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대표적인 테마파크인 미국의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 MGM, 파라마운트, 일본의 디즈니랜드와 후지 큐 등의 성공적인 이슈도 우리에게 중요한 학습효과를 제공해 주고 있다.

지역적인, 국민적인 욕구를 잘 파악하여 일본인들에게 맞는 시설을 도입한 것이 성공의 장점이 되었다.

에버랜드는 내부 마케팅전략으로써 최고 경쟁자는 디즈니랜드가 아니고, 일본의 니텐도와 게임기가 경쟁자라고 하였다. 방으로 파고드는 어린이와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호주의 광고 전략도 보자. 팽귄 먹이 주는데 비행기 요금 등 체류비, 급료 등으로 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전 세계의 젊은 청년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유효하게 홍보를 하는 아이디어를 참고해야 한다.

6. 결론으로는

고창을 먼저 찾고, 고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고창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물질과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차근차근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거대한 최고, 최대, 최상을 추구하기 보다는 오직 하나만을 만들어 고창을 홍보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새만금과 고창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지역지자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부안과 고창의 길목에 고창으로 끌어들일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둘째, 오직 하나 고창을 만들 수 있도록 내부적인 정신운동을 통해 깨끗한 고창, 정연한 고창을 만들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바다를 활용하는 고창으로 만들고, 더 이상의 무차별적인 도로보다는 최적의 여가 및 관광도로 하나에 간선은 있는 그대로의 역발상적인 길로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고창의 정체성을 관광, 농업, 산업에 맞는 명확한 목표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고창인지 농업고창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책적인 목표를 정한 후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기만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준비단)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방안

홍 장 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방안

- 해양생태관광을 중심으로 -



2010. 12. 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 장 원 책임연구원

발표순서

- 관광트랜드의 변화와 생태관광
- 연안/어촌지역의 해양생태관광
- 해양생태관광의 활성화 방안

1



관광트랜드의 변화와 생태관광

● 관광산업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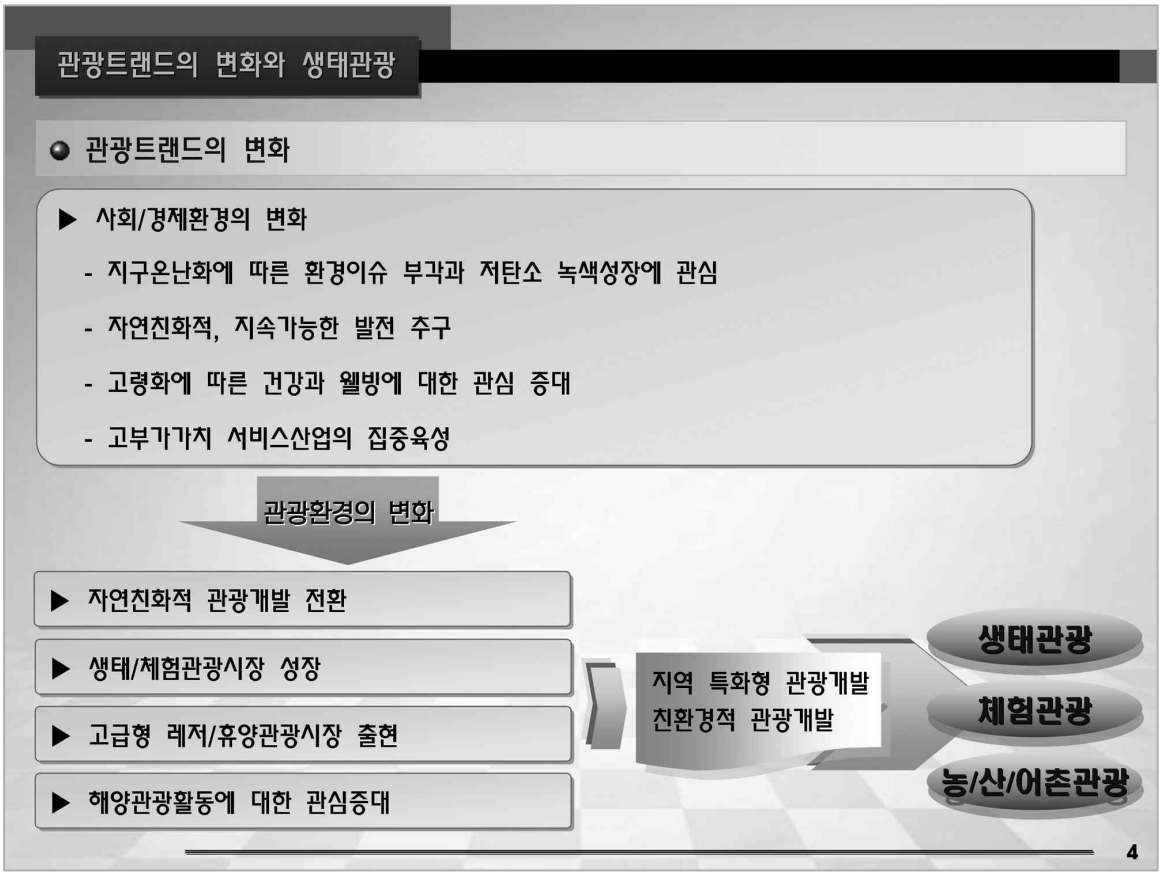
- ▶ 관광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 산업, 타 산업에 부가가치를 더함
- ▶ 낙후지역개발과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 ▶ 지역간, 국가간 교류기회의 확대
- ▶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제고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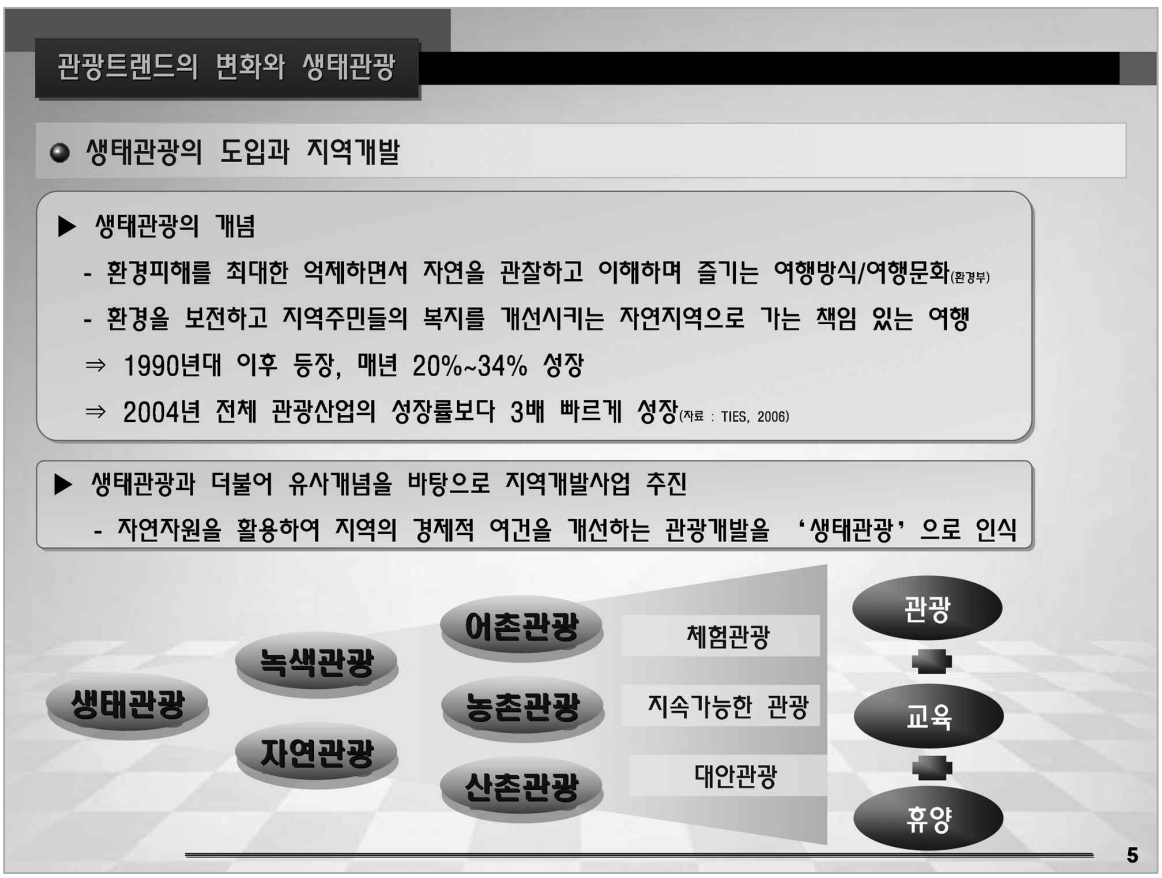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관광" 을 활용

● 관광산업의 편견과 제약요인

- ▶ 관광개발/산업 = 대단위 관광시설 조성 ⇒ 시설조성에 초점 : 관리/운영, 서비스에 무관심
- ▶ 관광개발 = 자원중심의 개발 ⇒ 공급자 중심의 개발 :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개발
- ▶ 관광개발 = 유사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 관광은 모방이 용이 : 해외사례 벤치마킹 초점

3


관광트랜드의 변화와 생태관광
관광트랜드의 변화
▶ 사회/경제환경의 변화
-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이슈 부각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심
- 자연친화적,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고령화에 따른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집중육성
관광환경의 변화
▶ 자연친화적 관광개발 전환
▶ 생태/체험관광시장 성장
▶ 고급형 레저/휴양관광시장 출현
▶ 해양관광활동에 대한 관심증대
지역 특화형 관광개발
친환경적 관광개발
생태관광
체험관광
농/산/어촌관광
4


관광트랜드의 변화와 생태관광
생태관광의 도입과 지역개발
▶ 생태관광의 개념
- 환경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방식/여행문화(환경부)
-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개선시키는 자연지역으로 가는 책임 있는 여행
⇒ 1990년대 이후 등장, 매년 20%~34% 성장
⇒ 2004년 전체 관광산업의 성장률보다 3배 빠르게 성장(자료 : TIES, 2006)
▶ 생태관광과 더불어 유사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관광개발을 '생태관광' 으로 인식
생태관광
녹색관광
자연관광
어촌관광
농촌관광
산촌관광
체험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대안관광
관광
교육
휴양
5

관광트랜드의 변화와 생태관광

● 생태관광의 도입과 지역개발

▶ "생태관광" 의 적극적 활용
- 관광개발을 "생태", "환경친화적", "자연친화적" 으로 포장하여 사업추진

관광개발 ➡ "생태" ✚ 관광개발 = 환경친화적 개발

● 생태관광의 추진방향

▶ 생태관광의 구성 : 자연환경과 지역주민, 관광자/관광산업의 조화가 기본 전제조건
-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콘텐츠의 발굴을 통하여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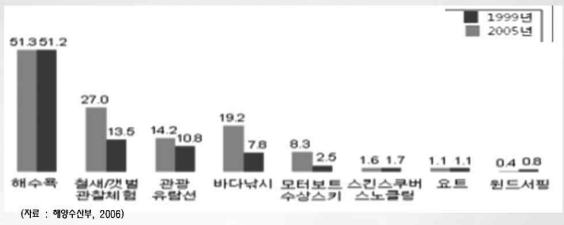
6

관광트랜드의 변화와 생태관광

● 해양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의 주진

▶ 연안지역의 관광수요 증대에 따라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
- 해양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사업 주진 : 해양생태관광, 어촌체험관광

- 2000년 이후 갯벌, 철새관찰 중심의 해양 생태관광 수요가 증가
- 최근, 고래, 물범 등 다양한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 등장



(자료 : 해양수산부, 2006)

▶ 해양생태관광의 한계점
- 해양생태관광 = 갯벌체험 ⇒ 대부분의 관광/체험교육 프로그램이 갯벌자원에 국한
- 갯벌체험관광 = 갯벌생물/수산물 채집 또는 극기체험 ⇒ 수산물 구매/시식과 연계 :어촌관광



7

관광트랜드의 변화와 생태관광

● 해양생태관광의 추진방향

▶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의 공유 : 관광을 통한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로운 균형

생태관광

정 부	➡	환경보전	VS	지역개발	➡	균형
관광자	➡	관광활동	VS	지역교류/이해	➡	균형
지역주민	➡	소득증대	VS	지역홍보/교류	➡	균형
이해당사자	➡	관광사업자 +	NGO	+ 전문가	➡	협력

▶ 생태관광의 기본적 추진 목적 달성

- 환경보전과 관광개발의 부정적 기능을 축소시키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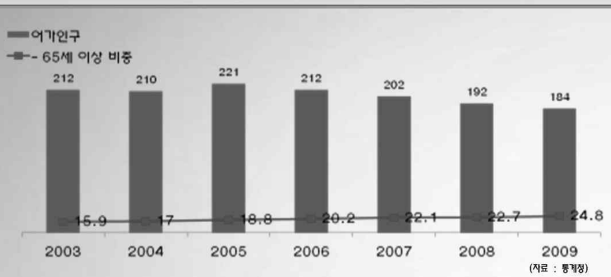
8



연안/어촌지역의 해양생태관광

● 연안/어촌지역의 체험관광사업

▶ 해양생태관광사업(어촌관광)의 도입배경



- 2000년 이후 어촌지역 인구 지속적 감소
- 어촌인구의 노령화(65세 이상)가 급격히 진행됨 : 어촌사회의 공동화 우려
- 연안/어촌지역의 어업소득률 또한 매년 감소
- 연안지역사회의 활력증대를 위한 방안 필요

▶ 연안/어촌지역의 체험관광사업

2000년대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관광모델사업 주진
  ▶ 도시와의 교류활성화에 초점,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전개

- 2000년대 이전, 시설개발이나 단순 지원위주의 관광사업 추진
- 연안지역의 소득다양화와 지역개발을 위해 '체험관광' 도입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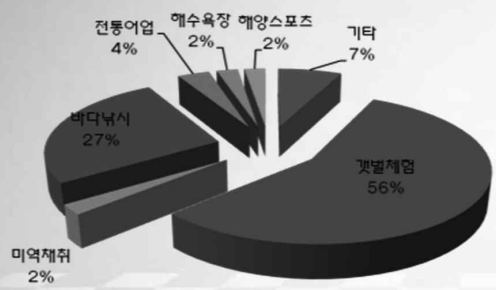
10

연안/어촌지역의 해양생태관광

● 연안/어촌지역의 체험관광사업

▶ 연안/어촌지역 체험관광사업 주진현황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주진과 함께 체험관광 활성화
- 2008년까지 전국 87개 어촌체험마을 조성(전국 112개 조성예정)



-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중심 테마 : 갯벌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와 더불어 바다낚시, 해양스포츠, 해수욕장 등에서의 체험프로그램 개발됨

⇒ 서해안 갯벌자원을 중심으로 한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 체험관광사업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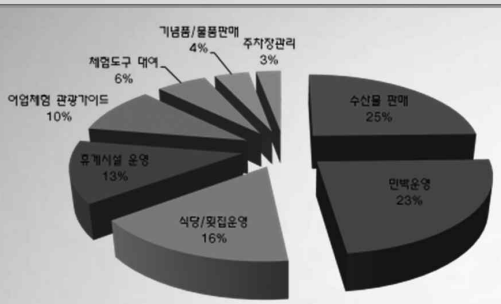
- 생태관광의 틀 속에서 주진, 체험관광=갯벌체험=수산물 채집
- 채집활동 중심의 관광활동 전개 ⇒ 관광을 통한 교육기능의 미흡과 프로그램 부족

11

연안/어촌지역의 해양생태관광

● 연안/어촌지역의 체험관광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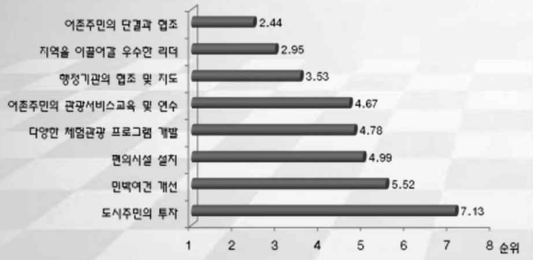
▶ 어촌지역 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분석



- 어촌체험관광사업 주진시 참여 희망사업은 민박, 수산물 판매, 식당/횟집 운영 등을 선호
- 체험프로그램과 관련된 가이드, 체험시설의 운영은 선호도가 낮음

⇒ 직접 소득효과가 높은 사업희망

⇒ 체험관광 운영(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인식 부족



- 어촌체험관광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지역주민의 단결과 협조, 지역리더 육성을 중요하게 인식
- 외부자본의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 지역주민 중심의 자체적 역량강화방안 마련

12

연안/어촌지역의 해양생태관광

● 체험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 긍정적 평가

- 체험관광활동 다양화에 기여, 지역 소득다양화의 계기 마련, 도시와의 교류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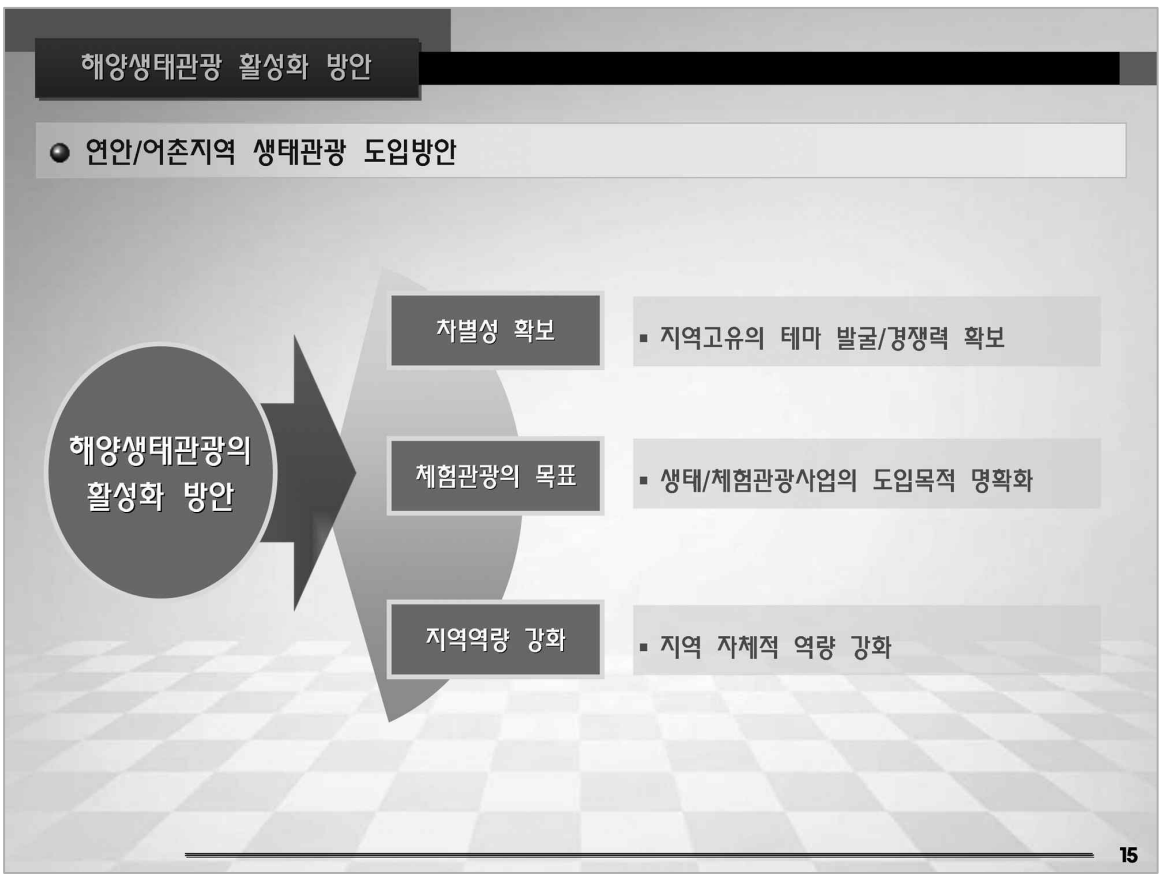
▶ 부정적 평가

연안/어촌지역 생태체험관광

- 전국적으로 유사한 체험테마/프로그램 → 차별성 확보/콘텐츠 확보
- 어촌관광마을 VS 관광어촌마을 → 관광개발의 목표인식
-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주체/지역리더 부재 → 지역역량강화

13


♦ 해양생태관광의 활성화 방안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연안/어촌지역 생태관광 도입방안
해양생태관광의 활성화 방안
차별성 확보
▪ 지역고유의 테마 발굴/경쟁력 확보
체험관광의 목표
▪ 생태/체험관광사업의 도입목적 명확화
지역역량 강화
▪ 지역 자체적 역량 강화
15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지역의 차별성 확보

▶ 연안지역 생태관광자원의 경쟁력강화
- 인접지역간 유사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 지역간의 경쟁, 차별성 부족시 만족도 저하 우려

구 분	체험마을 운영	방 문 객	비 고
고창군 하전마을	2004년	16천명(2004)⇒35천명(2007) ⇒45천명(2009)	2006년 우수마을 지정
고창군 만돌마을	2006년	6천명(2006) ⇒31천명(2007) ⇒42천명(2009)	2009년 최우수마을 지정



16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지역의 차별성 확보

▶ 다양한 체험관광테마, 프로그램 발굴
- 지역자원의 차별성, 지역홍보 ⇒ 지역명소화



17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지역의 차별성 확보

지역개발의 성공사례 일본 유후인



- 연간 400만명이 방문하는 농촌마을 : 관광단지, 위락시설 조성에서 탈피
- 지역문화를 관광상품으로 판매,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강조
- 유후인영화제, 지역농산물 품평회 등의 마을축제와 문화이벤트 개최

⇒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이벤트 발굴

유바리시의 관광개발사업



- 1990년대 광산산업의 폐광 이후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관광사업 착수(공공사업 붐에 편승하여 관광개발에 대규모 투자)
- 다양한 시설사업(관광테마공원, 스키장, 호텔)과 이벤트사업을 주진
- 거품경제 붕괴와 과다투자로 시의 재정이 파산(시재정의 4배 관광분야 투자)

⇒ 지역개발사업 전체를 시설조성 중심의 관광개발로 주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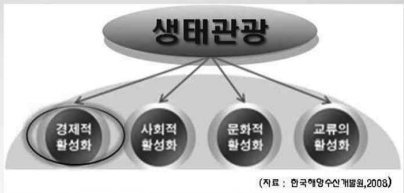
18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연안지역 생태/체험관광의 목표인식

▶ 관광어촌과 어촌관광
- 관광개발 기능과 영향에 대한 명확한 인식
- 관광자원 개발, 시설구상 지원 중심의 관광사업 탈피

▶ " 관광" 지역 변화/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적 활용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8)

생태관광 사업

경제적 영향
- 긍정적 영향 : 지역주민 소득증대, 새로운 일자리 제공, 공공기반시설 확충
- 부정적 영향 : 지역의 물가인상, 어업활동 지장초래, 지역자본의 외지 유출

환경적 영향
- 긍정적 영향 : 지역의 자연환경보전, 주거생활환경 개선
- 부정적 영향 : 환경오염과 쓰레기문제 발생, 관광객 과밀로 인한 혼잡발생

사회·문화적 영향
- 긍정적 영향 : 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문화적 공감대 형성
- 부정적 영향 : 지역주민간 갈등유발, 지역주민이 소외된 개발진행

▶ 생태관광/체험관광의 특성 인식 : 해양생태자원/수산자원의 보존과 이용(훼손)
- 생태자원의 민감성(환경훼손)과 지역경제의 효과에 대한 검토필요

19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지역주민의 자체적 역량강화

▶ 체험관광사업의 추진에 대비한 지역역량의 강화
- 지역주민/리더 육성과 더불어 외부 전문 인력의 적극적 활용
- 지역주민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지, 서비스마인드 육성, 관광교육, 경영교육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8)

- 2001년 어촌체험마을 지정/운영
- 갯벌체험을 중심으로 체험마을사업 운영
  - 단일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홍보미흡, 수익성 한계, 지역주민 갈등으로 지역 변화 필요

  ⇒ 지역주민에 대한 자체적 역량강화와 전문 컨설팅 추진

-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 체험마을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마련, 각종 홍보대회 참가, 홍보책자 발간
  - 체험장 주변 환경개선사업 참여
- 전문컨설팅
  - 체험마을사업 성과진단, 지역주민 서비스교육 추진, 지역주민 협력추진

  ⇒ 우수어촌체험마을 지정

20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지역주민의 자체적 역량강화

▶ 생태/체험관광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
- 자원개발/경제적 효과 측정/단순시설위주 지원에서의 탈피
- 이용자 수요중심, 지역주민 역량강화, 선택과 집중

공급 중심
- ➢ 자원중심의 개발
- ➢ 단순 시설지원/균형배분
- ➢ 이용자의 수의 증대에 관심

수요 중심
- ➢ 이용자중심의 개발
- ➢ 지역역량강화
- ➢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에 관심
- ➢ 성과평가/재투자

※ 일본 도시어촌교류촉진사업

⇒ 기반시설조성에서 탈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사업확산, 어업인 교육,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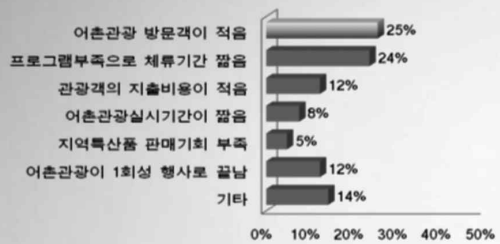
- 경제적 효과(관광소비, 고용창출)과 더불어 사회적 파급효과(지역간 교류, 지역의 연대 강화, 지역에 대한 관심/이해)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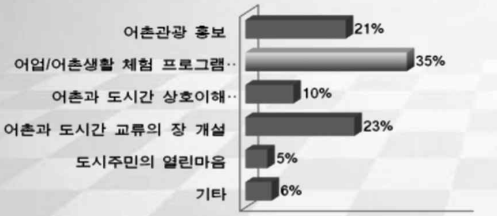
21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화 아이템 발굴

▶ 생태관광의 활성화방안
- 생태관광에 참여하는 방문객 수요 확충, 프로그램 개발 필요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8)

● 연안지역 생태관광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 방문객 부족, 프로그램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
⇒ 시장수요 창출과 관광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
지역주민과 연계된 체험프로그램 마련, 도시와 어촌의 교류공간 마련
⇒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더불어 관광활동 공간 조성이 필요함

체험프로그램+교류공간 마련 ▶ 수요창출

22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화 아이템 발굴

▶ 해양자원의 관광상품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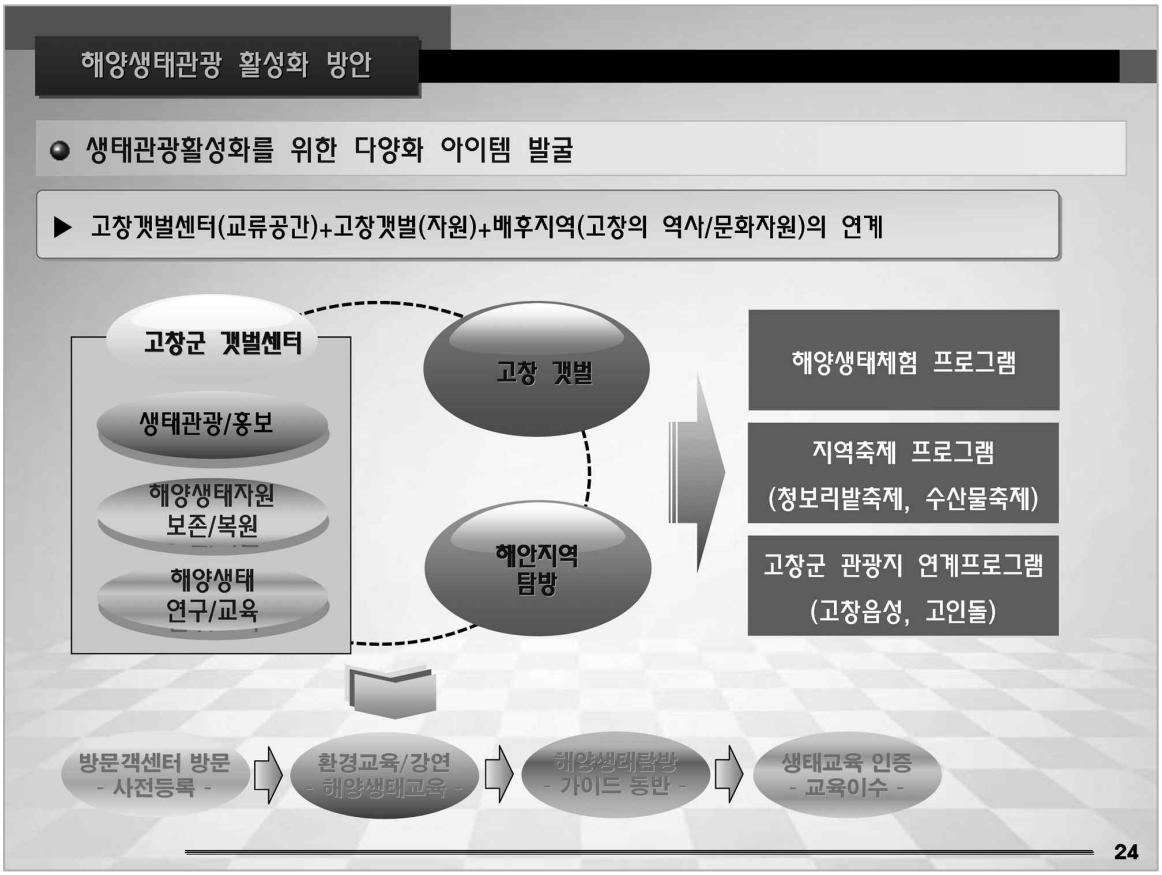


● 해양생태체험형 : 해양생태관찰, 갯벌체험, 어업체험, 생태관찰
● 해양역사문화형 : 해양역사, 문화 탐방
● 휴양/경관감상화형 : 연안에서의 휴식, 경관감상
● 해산물 특화형 : 해산물 특산품, 음식
● 지역축제형 : 어촌에서의 축제나 이벤트 활동
⇒ 지역의 자원여건과 배후지역 시장수요에 따라 관광프로그램 다양화

고창군

"생태체험" + "역사문화" + "경관감상"

23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화 아이템 발굴
▶ 고창갯벌센터(교류공간)+고창갯벌(자원)+배후지역(고창의 역사/문화자원)의 연계
고창군 갯벌센터
생태관광/홍보
해양생태자원 보존/복원
해양생태 연구/교육
고창 갯벌
해안지역 탐방
해양생태체험 프로그램
지역축제 프로그램 (청보리밭축제, 수산물축제)
고창군 관광지 연계프로그램 (고창읍성, 고인돌)
방문객센터 방문 - 사전등록 -
환경교육/강연 - 해양생태교육 -
해양생태탐방 - 가이드 동반 -
생태교육 인증 - 교육이수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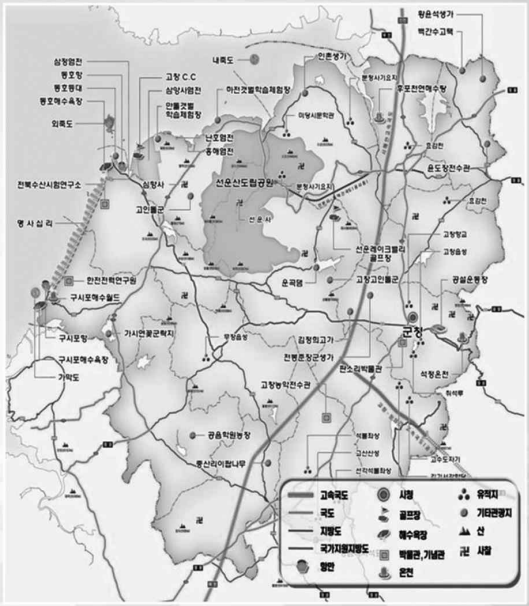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화 아이템 발굴
▶ 고창 해안생태탐방로를 통한 생태관광자원의 연계
고창군 해안탐방 앱서비스
해안생태탐방로
상포마을
하전갯벌체험마을
만돌갯벌체험마을
동호해수욕장
갯벌센터(가칭)
※습지복원사업예정지
명사십리 해안가
구시포 해수욕장
25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화 아이템 발굴

▶ 고창군 해양생태프로그램의 연계
- 해양생태체험, 경관감상형 프로그램
- 지역 축제 연계형
- 역사, 문화자원 연계형

▶ 고창군 해양생태프로그램
- 해안경관감상형 : 고창군 명사십리탐방 + 고창 갯벌센터방문(방문객센터 환경교육)
- 생태체험형 : 만돌/하전어촌체험마을 방문+고창 갯벌센터(생태습지, 갯벌체험장)
- 지역축제 연계형 : 청보리밭축제, 고인돌축제, 수산물축제 연계, 고창 갯벌생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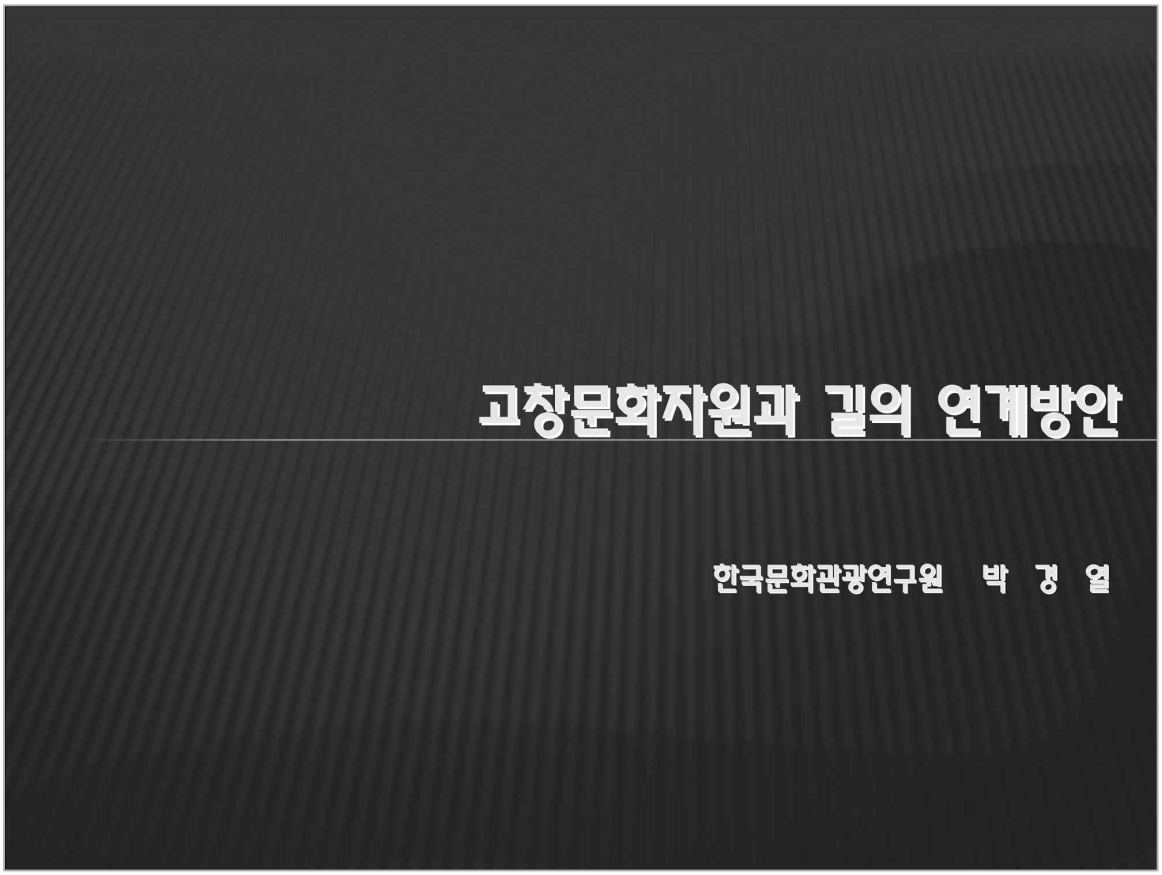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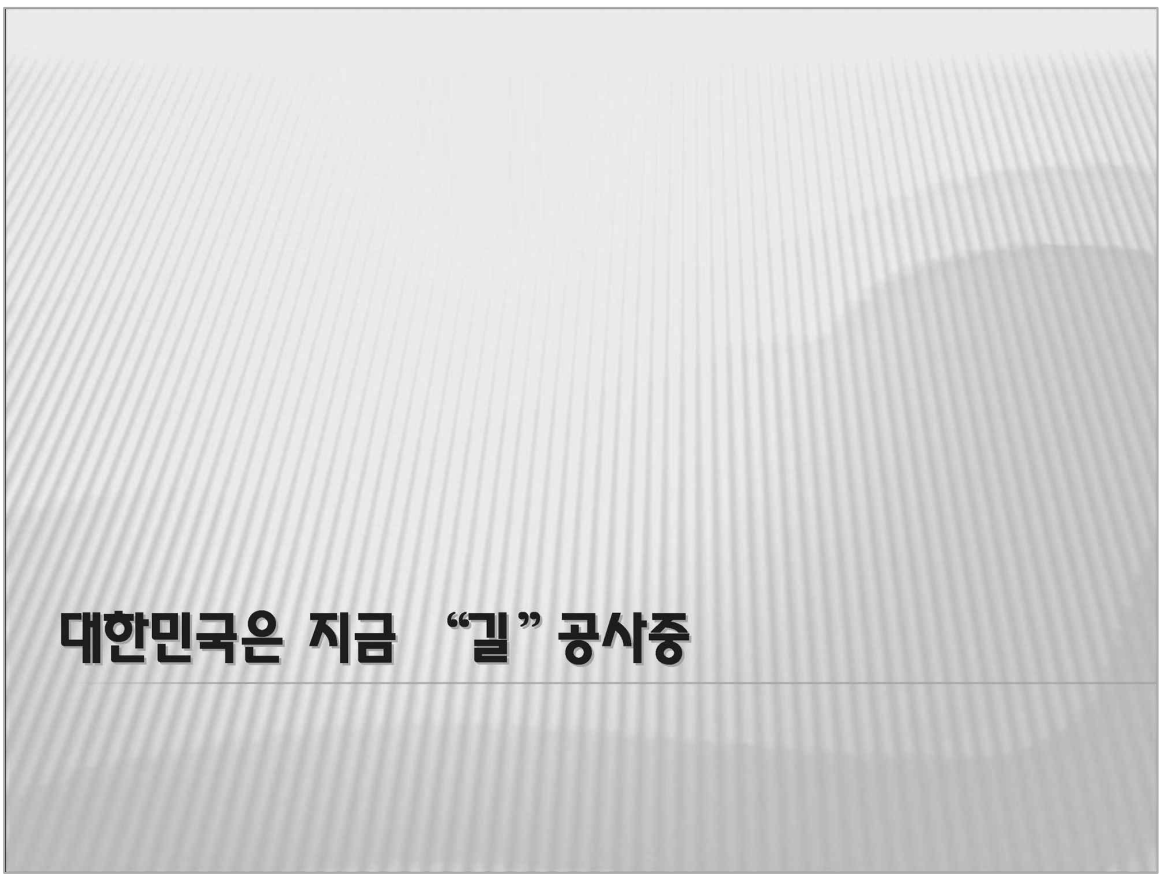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7

고창군 문화자원과 길의 연계 (동학농민혁명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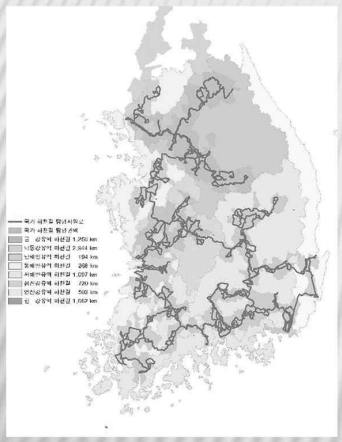
박 경 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고창문화자원과 길의 연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 경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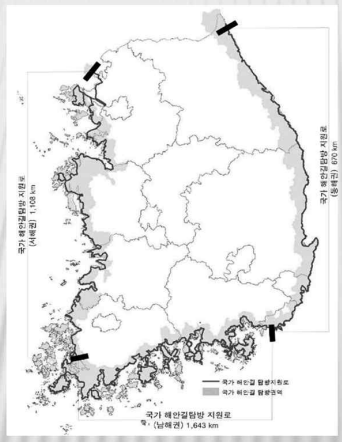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지금 “길” 공사중

환경부_국가 생태문화탐방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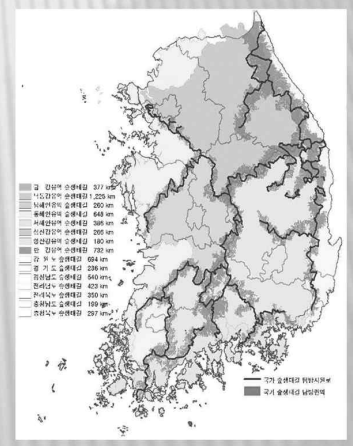
- "전국단위 국토생태탐방로조성계획" 연구(2007년)
-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체험, 학습, 감상 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보 중심의 길' 로 정의
- 2012년까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회피 및 이격하여 1,000㎞를 지정 및 조성할 계획



강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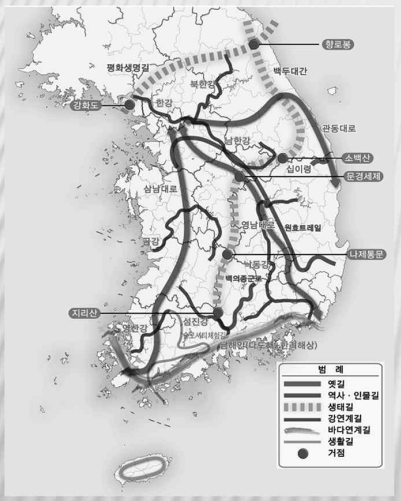
해안길



숲생태길

문화체육관광부_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역사자원을 특성있는 스토리로 엮어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중심의 길
- 2017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하여 1,200㎞의 문화생태탐방로를 계획하고 있음



2009년 문화생태탐방로 시범사업

지 역	탐방로명
경북영주, 충북 단양	소백산 자락길
인천 강화	강화 둘레길 : 강화예술을 따라가는 역사돈대길(1코스), 심도기행길(2코스)
전남 강진, 영암	삼남대로를 따라가는 정약용의 남도유배길
경북 영덕, 강원 삼척	동해 트레일 : 영덕 동해블루로드(1코스), 삼척지방 관동대로 따라 가는 길(2코스)
경남 하동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의 '토지' 길
전북 고창	고인돌과 질마재 따라 100리길 (복분자, 장어, 국화, 소금과 함께하는 길)
경기 여주, 강원 원주	여강(남한강)을 따라가는 역사문화체험길

2010년 문화생태탐방로 시범사업

지 역	탐방로명	테마
전남 해남	땅끝길(삼남대로 해남구간, 48㎞)	3대로옛길
충북괴산, 충주, 경북문경	세계넘어 소조령길(영남대로 문경·괴산·충주구간, 36㎞)	
강원 강릉, 평창	대관령 너머길(관동대로 대관령구간 등, 48㎞)	
경남산청, 하동	백의종군로(18㎞)	고난극복의 역사길
경기광주, 하남시, 서울송파	토성산성 어울길(19.6㎞)	
강원철원	쇠둘레 평화누리길(27㎞)	DMZ역사길
경남통영	토영 이야~길(25㎞)	남해안예술, 생활문화체험길
경남남해	남해 바래길(55㎞)	
전남완도(청산도)	청산여수길(19.4㎞)	슬로시티 체험길
전남신안(증도)	증도 모실길(42.7㎞)	

- 2009년 선정 강화나들길 4개 코스 75㎞ (총길이 132.5㎞), 소백산자락길 4개 코스 59㎞ (총길이 99.7㎞) 구간 연장

문화체육관광부_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해파랑길(동해안탐방로)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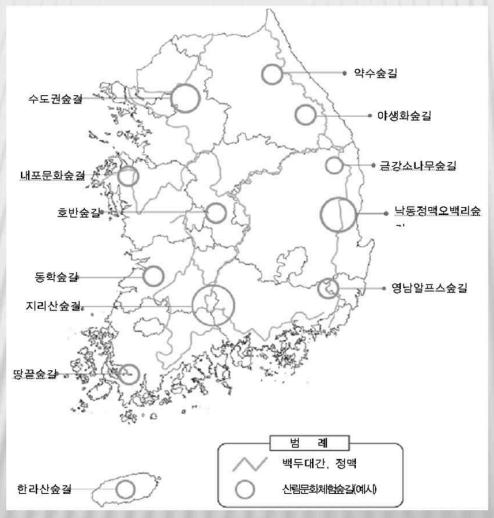
- 부산 오륙도~고성 통일전망대 688㎞ 구간을 잇는 국내 최장 트레일
- 화랑순례, 관동팔경 등 4개 테마, 40개 코스 선정 2014까지 조성
- 동해안 지역 18개 지자체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 및 공동마케팅
- 1,500년 전 화랑도의 곧기문화 복원 청소년여행문화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해파랑길 우선 조성구간(2010~2011)

시·군	구 간	길 이	테마
부산	오륙도~송정해수욕장	24km	동해아침
경북 경주, 포항	경주 봉길해수욕장~포항 양포항	23km	화랑, 삼국유사
경북 영덕	강구항~고래불 해수욕장	41km	푸른바다 (영덕 블루로드)
강원 강릉, 양양	강릉 강릉항~양양 광진리해수욕장	27km	석호
강원 고성	송지호~화진포	28km	통일염원

산림청_산림문화체험숲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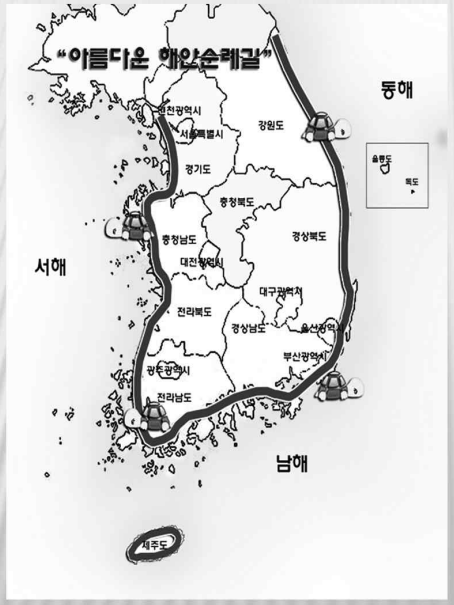
-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역 고유의 산림생태·문화·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산림문화체험숲길"을 2016년까지 전국에 12개소 1,500㎞를 조성할 계획
- 2009년 "산림문화체험숲길 조성계획"을 통하여 세부노선선정 및 자원조사 등을 계획 함
- 동학숲길이 노선구상(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산림문화체험숲길 특성을 고려 노선변경됨



산림문화체험숲길 노선 구상(안)

국토해양부_파도를 벗 삼아 걷는 "해안순례길"

➢ 국토해양부는 2010년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78개 연안 시·군·구 6,000㎞ 해안에 해양역사문화와 주변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체험할 수 있는 "해안순례길"을 조성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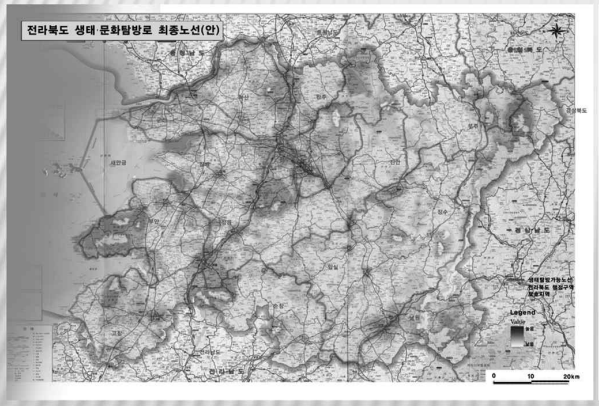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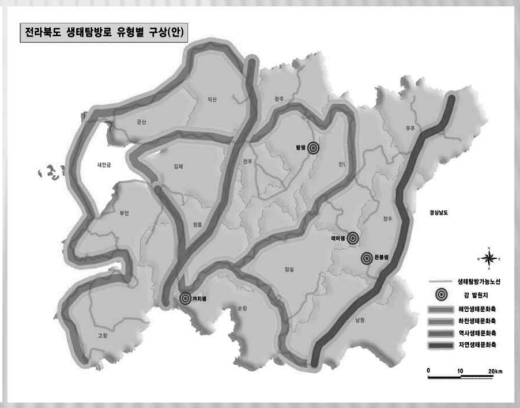
해안순례길 노선도

전라북도도 역시 "길" 공사중

전라북도 "여향천리 마실길" 추진경위

- 2008년 전북발전연구원 "국토생태탐방로와 전북권역 생태문화자원간 연계방안 연구"를 통하여 전라북도 길 노선과 유형을 구분함
- 2008년 완주군, 2009년 부안군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 길사업 시작
- 2009년 고창군 질마재길이 문화체육관광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됨
- 2009년 부안군 생태문화탐방로를 "마실길"로 칭하면서 전라북도 대표 브랜드가 됨
- 2010년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2009)으로 추진한 "데미샘과 진안고원 마실길"이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으로 선정됨





해안생태문화축	240km	역사문화생태축	106km	총연장 807km
하천생태문화축	310km	자연생태문화축	151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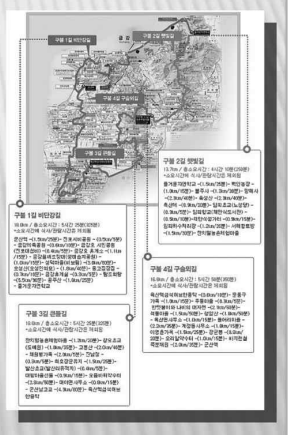
전라북도 길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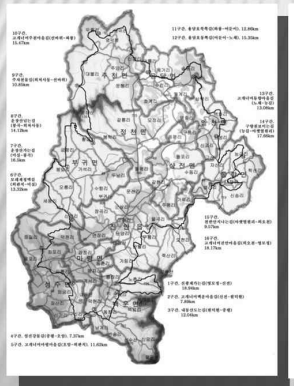
변산마실길(15.2km)



지리산길(300km)



군산 구불길(66.5km)



진안마실길(215.6km)



아름다운순례길(180.0km)



익산 둘레길(15.6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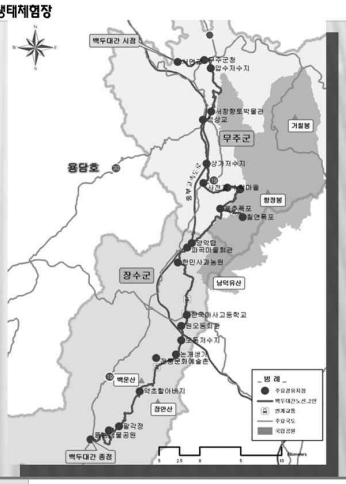
전주 숨길(7.1km)

2010년 전라북도 "예향천리 마실길" : 231㎞



서해안 해변길 (64㎞)	고창군	목우마을→후서마을→김소희생가→신촌마을→상포마을→반월마을→서정주 시인 묘소→미당 서정주 문학관	20㎞
	부안군	격포항→이순신 촬영 세트장→궁항→상록해수욕장→전북 학생수련원→모항해수욕장→모항갯벌체험장→작당마을→곰소 염전→유천 도요지→줄포습지 생태체험장	44㎞





모악산길 (56㎞)	전주시	전주완주경계→원당마을→학전주말농장→체련공원→노송군락지→중인리둥산로주차장→상송마을→독배마을→전주김제경계	11㎞
	김제시	전주김제경계→귀신사→싸리재→선암저수지→금구향교→양지마을→금평저수지→ 증산법종교 본부→동고약방→금산사→정룡사→배재	25㎞
	완주군	배재→장파마을→민속한의원→구이저수지→전주예술고교→도립미술관→구이노거수단지→전주완주경계	20㎞
백 두 대간길 (111㎞)	진안군	원덕현→구신치→원구신→하염북→상염북→염도→아조개재→중평→산주→원도통→중자교→섬진강변→풍혈냉천→양화→오암	19㎞
	무주군	반딧불테마공원→설천면소재지(무주태권도공원)→나제통문→수성대→배방→치매재→괴목저수지→두문산(무조리조트)→덕곡제→동안마을→칠연폭포→원통사→시루봉	42㎞
	장수군	시루봉→토옥동→양글호→파곡마을 →계북면 문성마을→논계기념관→한국마사고→장안리 지보마을→덕산리 연주마을→윗용소.아랫용소→방화동가족휴가촌→수분령휴게소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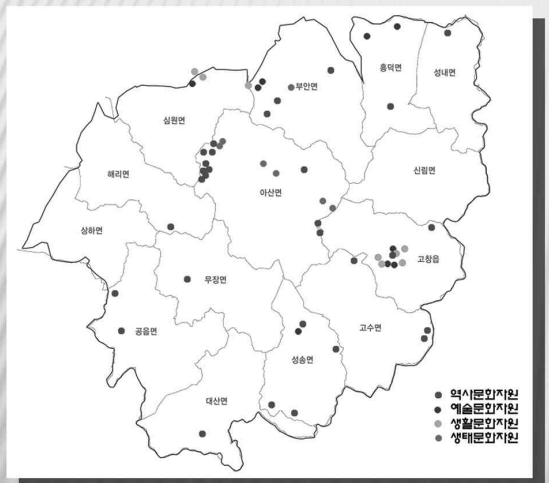
2010년 전라북도 "예향천리 마실길" : 1시군1 명품길 조성(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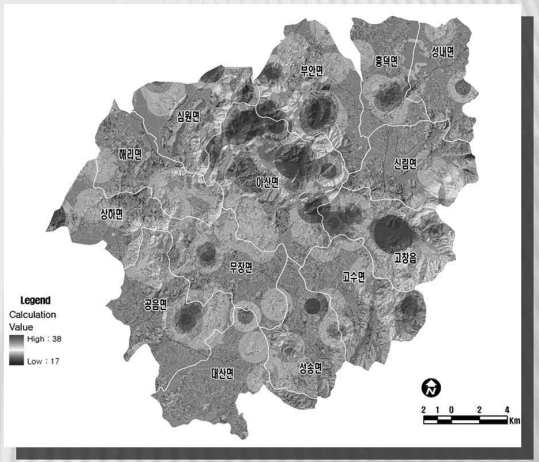
시.군	노 선	연장
전주시	자연생태박물관→학산→금성산→모악산	15㎞
군산시	옥산면수원지→옥산면 당북리(백석제)→옥구면 상평리→나운동 은파관광지	18㎞
익산시	1코스(9㎞) : 양반길(함라면소재지→함라산 탐방로)→병풍길(자생녹차군락지→함라산전망대)→한옥길(함라 조혜영 가옥→숭림사) 2코스(13㎞) : 역사길(입점리 고분전시관→함라산 탐방로)→명상길(철목제임도→자생녹차 군락지)→양반길(함라면 소재지→함라산 탐방로)→한옥길(함라 조혜영가옥→숭림사)→경변길(숭림사→웅포 곰개나루터)	18㎞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구절초 테마공원→임병찬 창의유적지→산내면 장금리(산, 호수마을)	15㎞
남원시	운봉 지리산자생식물환경공원→바래봉→대덕리조트(옥계댐)→국악성지→황산대첩비→축산기술연구소→허브벨리→지리산자생식물환경공원	15㎞
김제시	금구면 영천마을→상목마을→당월저수지→당월마을(자작나무 군락지)→양석마을(두룹나무 및 고사리군락지)→양석마을	14㎞
완주군	위봉폭포→송곶재→다자마을→학동마을→입석마을→대부산재→거인마을	18㎞
진안군	영모정→하미→신전→상백→백운동계곡→은인→원반	15㎞
무주군	부남면 유평마을(전문대,방앗거리놀이)→굴암(레프팅, 반딧불이 생태계보전지역)→ →무주읍 잠두마을(반딧불이)	15㎞
장수군	장수향교(장수읍 장수리)→의암사(장수읍 두산리)→용림제(장수읍 덕산리)→덕산 용소(덕산리)→방화동휴가촌(번암면 사암리)	14㎞
임실군	운암면 사양리→쌍암리→운암리→입석리→국사봉	15㎞
순창군	적성 강경마을→북대미→세목재→동계면 내룡마을→요강바위→북대미	14㎞
고창군	판소리박물관→고창5일시장→중거리당산→동리신재효생가→고창읍성→덕산생태연못둥산→오솔길(내동리)→다랭이논(노동리)→노동저수지→고창읍성→확산→전불→문수사→은사마을	18㎞
부안군	상서수련마을→월존마을→월정약수→관석동→우동재	15㎞
계		219㎞

고창군 길의 경쟁력은 ?

고창군 역사문화자원 및 길조성 가능지역(안)

- 고창군 고인돌군, 선운산, 고창객사, 동헌, 고창읍성 등 70여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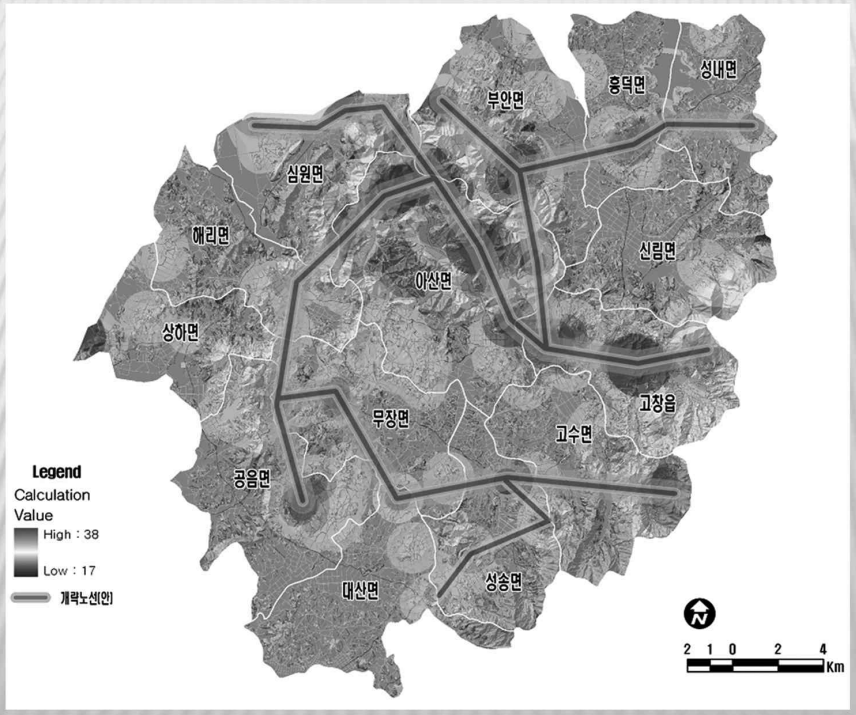




- 문화, 자연, 스토리, 관광자원 등의 분포현황을 분석한 고창군의 길 조성 가능지역
- 고창군 길 조성은 고창읍, 선운사, 아산면, 부안면을 중심으로 주변의 자원들이 연계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함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스토리가 있는 전라북도 문화생태탐방로 조성방안, 2009

고창군 길 조성 가능노선(안)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스토리가 있는 전라북도 문화생태탐방로 조성방안, 2009

고창군 길 현황

고창군 2009년 문화생태탐방로 시범사업 선정

고인돌과 질마재 따라 100리길
(복분자, 장어, 국화, 소금과 함께하는 길)



- 1코스(4.20㎞) 고인돌길 : 고인돌박물관~원평마을, 2코스(4.86㎞) 복분자길 : 원평마을~연기마을
- 3코스(6.15㎞) 질마재길 : 연기마을~검단소금전시관, 4코스(12.7㎞) 보 은 길 : 검단소금전시관~선운사

고창군 길 현황

예향천리 마실길 2010. 12월 개통





- 세계5대갯벌습지탐방길(17㎞) : 미당시문학관~안현돋움별마을~손화중피체지~신기마을~김성수생가~반월마을~구실막~전망대(상포정)~신농원마을~신촌마을~김소희생가~후포마을~목우마을
- 1코스 음성성곽길(14.0㎞) : 터미널~고창읍성~노동저수지,
- 2코스 편백숲길(7.2㎞) : 고창읍성~노동입구~월산산림욕장(편백림)
- 3코스 문수산단풍길(9.5㎞) : 김기서강학당(전불)~문수산단풍길~신수동삼거리
- 4코스 온천길(7.2㎞) : 솔재쉼터~천주교공소터~석정온천
- 5코스 양고살재길(5.2㎞) : 솔재쉼터~양고살재~석정온천
- 6코스 방장산길(17.5㎞) : 석정온천~용추골~가평마을
- 7코스 고인돌길(5.0㎞) : 터미널~도산정보화마을~고인돌공원

고창군의 길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 2009년까지 60여개 도시에서 100여개의 코스가 생겨났음. 테마별로 보면 역사탐방로, 자연산책로, 트레킹코스, 웰빙코스, 문학 및 인물탐방로 등 매우 다양함

지역	지역/명칭
강원	강원 산소(02)길, 바우길
경기	여주 여강길
	여강 역사문화 체험길
	경기오산 동부코스
	경기 안성 두리마을 산책로
	시흥시 늠내길
경남	마산시 무학산 둘레길
	진해시 장복하늘 마루산길~천자봉 해오름길
	사천시 노을길, 석양길
	함안군 에코싱싱로드
	창녕군 우포늪 둘레길
	거창군 서출동류의 물줄기와 함께하는 길
	밀양시 밀양강을 따라가는 역사문화 체험길
	지리산길
	하동군 박경리 토지길
경북	안동시 퇴계 오솔길(예던 길)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 희방 옛길, 용암산 탐방로
	문경시 문경새재 과거길
	영덕군 동해트레일, 동해안블루로드, 달맞이 탐방로, 해맞이 탐방로, 목은이색 탐방로, 팔각산 탐방로, 칠보산 탐방로, 오십천 탐방로
	울진군 십이령 옛길, 금강송 숲길, 백일홍 꽃길 조성탐방, 월송정~망양정 자전거거리 조성, 신선계곡 생태탐방로 조성
	경주시 화랑도 수련길
	경산시 언거랑 웰빙코스
	고령군 대가야 역사체험 탐방로
	군위군 위천 테마 탐방로
	김천시 괘빙령 과거길
	상주시 낙동강 투어로드, 낙동강 자전거 탄 풍경, 화북 우복동길, 백화산 왕의 길, 사벌 사벌국길
	청도군 남산 13곡
	칠송군 주왕산 문화생태 관광루트
	삼척시청 동해트레일~관동대로길
	경북 동해안길, 남동정맥 트레킹로드

지역	지역/명칭
전남	강진군/영암군 정약용 유배길
	목포시 갓바위길
	영광군 남도갯길 6000리길
	순천시 남도 삼백리길(순천만 바닷길)
	나주시 삼남대로 영산강 생태 탐방로
	완도군 소안 가학산, 대봉산 등산로, 예송~보옥간 탐방로
	강진군 삼남대로를 따라가는 정약용의 남도유배길
전북	고창군 불끈불끈 힘이 솟는 복분자 · 풍천장어길, 질마재길
	남원시 소리꾼이 들려주는 동편제 판소리길
	장수군/진안군 금강 역사기행로 따라 걷기
	전주시 둘레산 둘레길 잇기
	진안군 마실길
	부안군 변산 마실길
	군산시 밍해산 둘레길
	익산시 백제의 숨결 둘레길
	완주군 위봉 산성길
	장수군 마루현길
	전북도 전북길(애옾길)
충남	공주시 스토리가 있는 솔바람길
	예산군/서산군 가야산 내포문화길
충북	제천시 자드락길
	보은군 오리숲 산책로/세심정 산책로
	괴산군 산막이 옛길
광주	무등산옛길
대구	대구올레길, 앞산자락길, 도심문화 탐방 골목투어
대전	계족산 맨발 숲길, 둘레산길 잇기
부산	낙동강 버들길, 부산길, 해운대 문탠로드, 이기대 해안산책로, 동백섬 순환도로, 삼포해안길, 절영해안산책로, 암남공원 해안산책로, 두송반도 해안길, 천가동 해안산책로, 갈맷길
서울	그린 트레킹 서클
울산	울산 솔 마루길, 솔마루길
인천	강화 나들길, 강화 해안도로
제주	제주 올레길
기타	환경부 국토생태탐방로, 산림청 국가숲길, 문화체육관광부 4대강길

고창군의 길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길 계획들의 문제점

- 선형적인 탐방코스와 자원들을 연계해주는 행태로 탐방/도보코스관련 인프라조성위주의 계획들로 이루어졌음
-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조직에 대해서도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며 소프트웨어적인 관련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이나 컨텐츠개발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국내 도보여행은 100개의 코스로 다양한 테마(역사문화, 자연생태, 웰빙, 인물)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테마에 있어서 뚜렷한 특색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도보코스와 비슷하게 조성된 경우가 매우 많아 지역적 개성과 자원적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2010.3

고창군의 길은……

- 현재 고창군 길의 특성을 살펴보면 습지의 람사등록을 계기로 갯벌습지와 담수습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생태테마, 서정주, 김소희, 신재효 등의 문화예술테마, 선운사, 고인돌, 동학 등의 역사테마로 구성될 수 있음
- 자연생태테마와 문화예술테마는 기 조성완료되었으며, 향후 고창군의 길은 동학을 중심으로 한 역사테마가 주요 발굴대상으로 남겨짐

고창군의 동학농민혁명자원

-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을 만방에 선포한 무장기포지가 있으며 손화중의 활동무대, 전봉준의 생가가 존재한 곳으로 정읍과 함께 동학동민혁명의 중요한 기반이 된 지역임

번호	유 적 지	소 재 지	문화재 지정
1	무장 기포지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2	여시뫼봉	공음면 신대리와 무장면 신촌리에 걸쳐있음	
3	삿갓봉	공음면 용산리	
4	전봉준 생가터	고창읍 죽림리 당촌마을	
5	손화중 도소	성송면 괴치리 276-1	
6	손화중 피체지	부안면 송현리 120번지	
7	정백현 생가터	공음면 예전리 상례마을	
8	선운산 도솔암 마애불	아산면 삼인리 618	보물 1200호
9	무장읍성	무장면 성내리 149-1	사적 346호
10	홍성 동헌	흥덕면 흥덕리 428-3	유형문화재 77호










자료 : 이상균, 문화재적 가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무장 기포지, 2010

동학농민혁명과 길의 연계를 위한 제안

이야깃 거리가 있는 길의 조성이 필요하다.

산티아고 순례길-산티아고 데 꼼뽀스텔라

➢1,000년이 넘은 순례길인 산티아고 데 꼼뽀스텔라 대성당에 있는 성 야고보의 무덤까지를 영어로 야고보의 길(Way of St. James)또는 갈리시아어로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하며 매년 전 세계적으로 십만명이 이 길을 걸음



자료 : 최미선(2009), 「산티아고 가는길」, 네이버 블로그 "삶의절정"(2008), blog.naver.com/chock47

이야깃 거리가 있는 길의 조성이 필요하다.

일본 시코쿠 순례길

➢마츠야마 시내에 있는 사찰들을 도보로 일상생활의 현장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일본 진언종의 창시자인 홍법대사의 자취를 따라 88개의 절을 참배하는 순례길

➢번호가 매겨진 88개의 절을 1번 절부터 시계방향으로 순례, 다시 1번 절로 돌아오는 1,200킬로미터의 길로 순례자들은 하쿠아라 불리는 흰 웃옷을 입고 스게사라 불리는 삿갓모자를 쓰고, 홍법대사를 상징하는 즈에라는 이름의 지팡이를 들고 걸음

항목	주요내용
개념	· 시코구 헨로미치 : 일본 시코쿠 지역의 88개 사찰을 수행의 목적으로 도는 길로서 서민들의 생활 공간임 · 수행자는 주민 및 길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격을 고양시킴
역사	· 약 1,200년전 코보대사가 42세 때 고난에 빠진 이들을 위해 만든 사찰이 시코쿠 영지임. 홍법대사가 입적한 후 그의 흔적이 남아 있는 사찰을 순례하는 것이 승려들로부터 시작되어 일반 신도들에게도 널리 퍼지게 됨
길 형성원리	· 생활길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길이며 수행자들이 지름길로 삼았던 길임 · 따라서 이 길은 시대흐름에 따라 언제든지 노선변경이 가능함
총 연장	· 약 1,400km
노선관리	·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의 특별한 지원은 없었음 · NGO 차원의 자발적 관리가 행해지고 있음
안내지도	· 1990년 헨로미치 안내지도 초판 발간 · 1997년 제8판 발행
안내표지	· 헨로미치 보존협의회에서 표지목과 표지석 설치 · 국토교통성에서 표지석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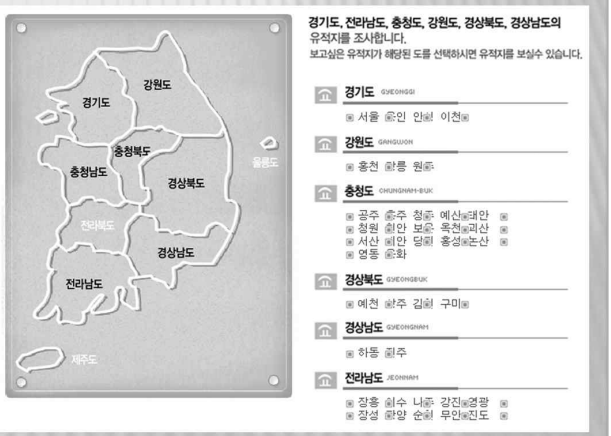
자료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청운대학교 지역문화사업연구센터(2009). 충청남도 대표 옛길

광역화된 동학길의 추진이 필요하다.

➢동학혁명의 역사는 고창군 뿐만 아니라 전북→전국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광역적인 길조성이 이루어져야 함

➢전북의 경우 전주권, 고창권, 남원권, 정읍권, 김제권 등에 역사자원 들이 산재해 있으며 충청권과 전남권 역시 관련 역사자원들이 분포하고 있음





마을과 연계된 길의 조성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과 공감대 형성 및 경제활성화와 연계

➢지나친 관광자원화 지양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필요

프랑스 랑도네 챌린지 프로그램

➢ 2~4명이 한 조를 이루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도 보는 방법 습득, 숲속에서의 방향감각 및 주변 환경파악, 트레일 및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증대 등의 효과가 있음

➢ 매년 전국대회를 통해서 우승자를 가리고 참여를 독려함. 진행방법은 참여자들이 트레일 상의 특정 지점들에 대한 지역 환경 및 문화, 역사 등과 관련된 질문의 답을 처음에 나누어준 질문지 종이에 적고,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대회임

지오캐싱(Goecaching)

➢ 트레일상에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며 숨어 있는 보물을 찾는 게임

➢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이 트레일 상에 본인이 생각하는 보물이나 작은 선물을 상자에 넣어 숨겨 둔 후에 선물의 존재와 그 지점의 좌표를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그 선물을 찾아 가는 게임. 선물을 찾은 사람은 그 상자에 자신이 가지고 온 또 다른 선물을 넣어 둠


감 사 합 니 다.

종합토론

메모

메모